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정 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이 지각한
부모 갈등과 결혼에 대한 태도의 관계

: 부모-자녀 관계 및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202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류 멩 치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이 지각한
부모 갈등과 결혼에 대한 태도의 관계
: 부모-자녀 관계 및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이 정 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류 명 치

인 준 서

류명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5년 6월

심사위원장진 경 선(인)

심 사 위 원박 혜 경(인)

심 사 위 원이 정 윤(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지각한 부모 갈등과 결혼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적 지지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참여자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한국에서 유학 중인 미혼 중국인 대학생과 대학원생 298명으로, 온라인을 통해 자기 보고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성별, 연령, 유학 지역, 학력, 한국 거주 기간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함께, 지각한 부모 갈등,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지지, 결혼 태도 척도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첫째, 지각한 부모 갈등,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지지, 결혼 태도 척도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둘째, 부모-자녀 관계는 지각한 부모 갈등과 결혼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부모 갈등과 결혼 태도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적 지지는 지각된 부모 갈등과 결혼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에서 완전한 순차적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인의 결혼 태도가 지각한 부모 갈등, 부모-자녀 관계 및 사회적 지지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밝혀냄으로써,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의 부정적인 결혼 태도의 원인과 기제를 이해하고, 나아가 내담자가 속한 문화적 배경과 관계 맥락 속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 체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중국 유학생, 지각한 부모 갈등,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지지, 결혼에 대한 태도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II. 이론적 배경	9
1. 결혼에 대한 태도	9
2. 지각한 부모 갈등	10
1) 지각한 부모 갈등의 개념	10
2) 지각한 부모 갈등과 결혼에 대한 태도	11
3. 부모-자녀 관계	13
1) 부모-자녀 관계의 개념	13
2) 지각한 부모 갈등과 부모-자녀 관계	14
3) 부모-자녀 관계와 결혼에 대한 태도	15
4. 사회적 지지	16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16
2) 지각한 부모 갈등과 사회적 지지	18
3) 사회적 지지와 결혼에 대한 태도	18
5.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적 지지	19
III. 연구문제 및 가설	22
1. 연구 모형	22

2. 연구문제 및 가설 23

IV. 연구 방법 25

1. 연구 대상 25

2. 측정 도구 28

 1) 지각한 부모 갈등 척도 28

 2) 부모-자녀 관계 척도 29

 3) 사회적 지지 척도 30

 4) 결혼 태도 척도 31

3. 통제변인 32

4. 분석방법 33

V. 연구 결과 34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34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분석 35

3. 주요 변인들의 상관 37

4. 매개효과 검증 39

5. 간접효과 검증 43

VI. 논의 및 결론 45

참고문헌

부록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 분석	27
〈표 2〉 지각한 부모 갈등 척도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계수	28
〈표 3〉 부모-자녀 관계 척도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계수	30
〈표 4〉 사회적 지지 척도 문항 구성과 신뢰도 계수	31
〈표 5〉 결혼 태도 척도 문항 구성과 신뢰도 계수	32
〈표 6〉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34
〈표 7〉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분석	36
〈표 8〉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38
〈표 9〉 매개효과 검증 결과	42
〈표 10〉 간접효과 Bootstrapping 결과	44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 모형	22
[그림 2] 최종 모형	39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중국 전통문화에서 결혼은 사회적 관계의 근간이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이상적인 결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결혼과 관련된 예교와 도덕적 규범이 예로부터 이어져 왔다(張淑一, 2013). 이처럼 결혼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인생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선택 가능한 삶의 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진미정, 정혜은, 2010).

최근 들어 젊은이들의 비혼이나 비출산과 같은 사회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적인 결혼관의 영향을 받아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Coontz, 2005), 비혼이나 만혼 현상이 점차 더 일반화되고 있다(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2024; 한국 통계청, 2023).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혼인 신고 건수는 9년 연속 감소하였으며, 2023년에는 소폭 증가했으나 2024년에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2025). 최근 들어 중국 젊은이들의 결혼 및 연애 상황은 초혼 나이의 지연, 결혼율 감소 및 이혼율 증가 등 상당히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2024). 중국의 젊은이들은 "결혼이 어렵다"라는 단계에서 "독신 생활을 선호한다"라는 단계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독신 가치관을 형성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995년 이후 출생한 젊은이들의 경우 독신 생활 방식을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李芳芳, 朱冬亮, 2024).

개인이 속한 사회적 환경, 그리고 가족 경험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이 개인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Blagojevic, 1989). 그중에 개인의 원가

족 경험은 결혼과 관련된 연구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으며(김예리, 2009; 김종운, 이정희, 2019). 부모의 부부 관계는 비가시적 교육 형태로 작용하여 대학생의 결혼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魏祥遷, 陳子楊, & 李夢文, 2019), 자녀는 부모를 통해 처음 결혼을 접하게 되므로 부모의 부부 관계는 자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Feng et al., 1999).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 갈등은 부부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형성하게 하여 결혼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형성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邢凱, 楊莎, & 陳毅文, 2019), 부모의 부부갈등은 자녀의 결혼 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鍾珮純, 王鍾和, 鍾珮純, 2007). 반면, 부모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대학생일수록 연애와 결혼에 대한 태도가 더욱 긍정적이고, 이성 관계에서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을 더 많이 하며, 자신의 감정을 더 능동적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李祖嫻, 聶衍剛, & 田婧妤, 2009). 따라서, 원가족 경험은 개인이 지니는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모-자녀 관계는 가족 내 중요한 구성원 간 관계 중 하나로, 부부 간 갈등은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자녀 관계, 어머니-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Blodgett et al., 2014), 부모-자녀 간 안정적 애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周子涵, 劉學蘭, 賴曉璐, 金雯雯, & 黃友強, 2018). 부모의 결혼 만족도는 양육 회피 행동이나 정서적 표현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周柳伶, 李信, 劉彤, & 陳毅文, 2017). 또한, 부모는 부부 관계에서의 불만족감을 양육 행동에 반영할 수 있으며, 정서적 표현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투사할 수 있다(李苗苗, 者亞囡, 陰桐桐, & 邢曉沛, 2019). 소영화와 조한익(2015)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갈등은 상호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부갈등과 부부 이혼이 부모-성인 자녀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Yu(2010)는 부부갈등과 부부 이혼이 모두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부부갈등이 이혼보다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강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는 개인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환경적 기초를 제공하며(Collins, 1999), 좋은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한 개인은 친밀한 관계에서 더 높은 신뢰를 보이고 적대감은 낮은 경향을 나타낸다(King, 2002).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개인은 부모의 상호작용 방식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 친밀한 관계에서의 대처 전략을 학습하며(Dennison & Koerner, 2006), 이는 향후 결혼 및 가족 관계에 대한 기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가 이혼하지 않았지만, 부모 갈등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는 부모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을 더 많이 경험하며, 성인 초기에는 결혼에 대한 비전통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결혼을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熊明瑞, 劉倩, & 付瑤, 2022). 반면,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수록 결혼에 대한 태도가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난다(熊明瑞, 劉倩, & 付瑤, 2022).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한 자녀일수록 자신의 감정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친밀한 관계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정서조절 능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Collins & Read, 1990). 이처럼 원가족의 부모-자녀 간 관계는 자녀의 결혼 질에 영향을 미치며, 원가족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개인일수록 결혼 갈등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Hu et al., 2015).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을 중심으로 하여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과 전문가로부터 받은 정서적 도움, 정보적 도움, 평가적 도움을 포함하여, 개인이 다양한 대인관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도움을 말한다(박지원, 1985). 또래 관계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 자원 중 하나이며, 또래 관계의 질은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부모 갈

등이 높은 가정 내 청소년의 또래 관계 질은 부정적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조주연, 도현심, 2011). 부모의 부부갈등 정도가 자녀의 또래 관계 기술이나 사회적 능력을 예측할 수 있고(Emery & O'Leary, 1984), 부모의 부부갈등은 자녀가 또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유능성이나 성공을 예측하는 중요한 결정 요소이다(Parke & Ladd, 2016). 자녀는 부모가 서로 대립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이를 모델링하기 때문에 또래와의 대립이 생겼을 때 부모가 대처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등 문제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Grych & Fincham, 1990). 부모 갈등이 심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정서적 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나고 또래 간 논쟁 상황에서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이는 부모가 갈등 상황에서 보이는 행동 방식과 일치한다. 또한, 부모 갈등은 중학생의 사회적 불안에 유의미한 예측 변인으로 작용하며, 부모 갈등을 빈번하게 경험한 중학생일수록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何金晶, 2010).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부모 간의 갈등을 많이 지각하는 자녀일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 또한 낮게 지각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Diener(2009)는 대인관계 차원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관계없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결혼 만족도와 높은 정적 상관을 가지며(이은섭, 2002), 개인의 결혼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문수경 등, 2009). 또한, 김중운과 이정희(2019)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와 결혼관의 하위요인 중 제도 및 정서적 안정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결혼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대학생이 지각한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는 모두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와 진로 결정 수준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석수진, 김장희, 2018). 이러한 연구들로 미뤄보아 사회적 지지는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 부모-자녀 관계, 지각한 사회적 지지, 결혼에 대한 태도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부모 갈등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지각한 사회적 지지, 결혼에 대한 태도의 경로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특히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중국에서도 젊은이들 사이에 결혼을 피하거나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의 낮은 결혼율 문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한국 통계청, 2024). 반면, 중국의 결혼율 감소 현상은 2000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이후부터는 청년층에서 결혼 연령을 미루거나 비혼을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특히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결혼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2024). 한국과 중국은 아시아에서 특히 저출산 문제가 두드러지는 국가로,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결혼율 하락이 지적되고 있다(金英玉, 李梅 & 厲艷麗, 2024). 한국은 1996년부터 인구 증가율이 1% 미만을 유지해왔으며, 2000년 이후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金炳徹, 都南希, 2020). 중국 통계청은 2011년에 처음으로 출산 관련 사회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저출산율이 향후 노동력 감소를 비롯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확히 언급하였다(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2011).

또한 鄭眞眞(2014)은 한국의 출산율 변화 추이와 그 영향을 분석하며, 이는 중국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빠른 경제 발전과 도시화 과정을 거친 후 출산율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鄭眞眞, 2014). 한국의 출산율은 한국 사회의 경제적 압박, 취업 압박, 사회적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속적으로 저하되었다. 중국의 출산율 변화 과정은 한국보다 시기만 다소 늦을 뿐 매우 유사하다. 한국은 2005년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였고(윤홍식, 2006), 중국은 2013년에 공식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였으며, 2016년과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하였다(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2013). 鄭眞眞(2014)는 중국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출산율 감소에 대응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 자료로 미뤄볼 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중국보다 한국에서 보다 이른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가 심각한 결혼율 하락과 저출산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사회 경쟁 스트레스가 커짐에 따라 유학이 하나의 사회적 추세로 자리 잡았다(謝麗惠, 鄧大松, 2012). 여러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국 유학생들이 유학을 선택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더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학력과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劉紅霞, 房嘉煦 2011; 謝冀蓉, 2012; 陸根書, 田美, & 黎万紅, 2014; 李文倩, 2017). 劉伯凡와 劉叶(2018)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교육수준은 초혼 연령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젊은이들은 높은 교육을 받은 후 이에 걸맞은 높은 수입을 얻기를 기대하며, 결혼에 대한 관념은 더욱 개방적으로 된다. 교육수준의 증가로 인해 배우자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아져 결혼 시장에서의 매칭에 어려움을 초래한다(劉伯凡, 劉叶, 2018).

또한, 오랜 기간 동안 한국 문화는 드라마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중국 청소년과 청년층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吳飜, 王爽, 2016; 譚潤杰, 李莎莎, 2015; 馬赫, 李虹, 2018; 杜星妤, 李佩, 高洁, & 楊茹茹, 2016). 郭曉燕(2020)은 한국 문화가 중국 청년층의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한국 문화가 중국 청년층의 배우자 선택 기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배우자 선택 기준의 변화는 주로 외모, 신체 조건, 도덕성, 학력, 경제적 요건에서 나타났으며, 배우자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미뤄볼 때 한국에 유학 중인 중국 학생들은 유학으로 인한 높은 교육수준과 중국보다 일찍 시작된 한국 젊은이들의 결혼관의 영향을 받아 보다 개방적이고 독립적인 결혼관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은 다문화적 경험을 가진 집단으로서, 한국 문화와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Berry(1992)의 문화적응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서로 다른 문화 환경을 접할 때, 두 문화 환경이 모두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에 따르면 개인의 생각과 행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개인은 해외 문화에 적응한 다음에 모국으로 귀국한 후 재적응의 어려움을 겪으며, 역문화 충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何蓓, 2012).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 집단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의 결혼 태도를 연구하는 것은 다문화 경험을 가진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의 결혼 태도 변화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이 지각한 부모 갈등이 결혼에 대한 태도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부모-자녀 관계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각각 매개하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지각한 부모 갈등이 부모-자녀 관계와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거쳐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이 지각한 부모 갈등이 결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기제를 밝힘으로써, 상담 장면에서 결혼 교육 및 심리적 개입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는 다문화적

경험을 가진 개인이 원가족과 관련된 영향 요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결혼에 대한 태도

Erikson(1950)의 심리사회 발달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생애의 각 단계에서 특정한 심리적 발달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청년기의 주요 발달 과제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결혼은 청년기에 친밀감을 형성할 중요한 기회 중 하나로 간주된다.

결혼이란 두 사람의 의사결정에 따른 만남이 관습이나 법에 따라 인증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아울러 이와 함께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김건영, 2009). 결혼 태도는 개인의 가치관이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반영된 것이며(趙冰洁, 2002), 개인의 인생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인생관의 구체적 표현이다(劉亞麗, 2003). 결혼 태도란 개인이 결혼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 인식으로서,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Braten & Rosen, 1998). 이 개념은 일반적인 부부 관계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포함할 뿐 아니라,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평가와 기대를 포함하고 있다(Willough, 2010).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결혼에 대한 태도를 미래의 결혼 생활에 관한 기대감으로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서 있을 부모로서의 행동이나 배우자와 자신의 관계, 가정생활 등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정의한다(박혜림, 2012).

중국 전통문화에서 결혼은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혼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고 가문의 혈통을 계승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역할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 들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출산 문화는 여전히 중국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은 개인의 결

혼 목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宋健, 劉詩雯, & 唐田榮, 2024). 결혼은 중국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단순히 부부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두 가문의 결합으로 인식된다(袁曉嬌, 方曉義, 鄧林園, & 藺秀云, 2015). 따라서 결혼은 개인적 감정적 결합일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기대를 동반한다. 그러나 중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결혼의 평균 연령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賈志科, 風笑天, 2018), 젊은이들의 결혼 의향은 감소하고 있다(何昊陽, 2022).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환경, 원가족에서의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관계의 불안정성, 정부의 다자녀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인한 자녀 양육 비용 증가 등이 이러한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羅煜霖, 王宇辰, 王昭越, 金美道, & 黃佳怡, 2024).

2. 지각한 부모 갈등

1) 지각한 부모 갈등의 개념

부부갈등은 부부간에 어긋나는 욕구와 목표, 기대의 불일치로 정의된다(Davies & Cummings, 1994). 池麗萍(2002)는 부부 간의 견해차나 기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언어적 또는 신체적 공격과 다툼을 발생 횟수, 강도, 내용, 방식, 갈등이 해소되었는지의 여부와 같은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거의 모든 부부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이 존재하지만, 모든 부모 갈등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자녀가 지각하지 못한 부모 갈등은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미하며, 오직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만이 자녀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Georgsson et al., 2011; 蘇英, 洪炜, & 崔軼, 2013). 자녀 앞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부갈등

은 자녀의 심리 건강 및 사회적응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彭厚鵬, 羅五金, 2004), 아동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劉湘玲, 王俊紅, 2010), 청소년의 불안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He, 2010). 나아가, 유년기 시절 부모의 갈등과 부모 이혼은 청소년기 자녀의 불안 및 우울 위험을 증가시킨다(Spence et al., 2002). 부모 관계가 원만하고 가정 분위기가 화목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은 부모 관계가 좋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뚜렷이 높고 자신감이 높다(張靜, 石淑華, 朝美榮, 周愛琴, & 劉海霞, 2003).

부모 갈등이 자녀의 정서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은 정서 안정성 모형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정서 안정성 모형은 부모의 갈등이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것을 가정한다(Davies & Cummings, 1994). 이 모형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자녀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기와 성인기 자녀들도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 자신의 삶과 미래의 행복에 대해 정서적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Shimkowski et al., 2017). 또한, 지속적인 부모의 갈등이 성인 초기인 자녀들의 상담 요청, 부정적인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Zill et al., 1993). 그래서 부모 갈등이 중단되더라도 자녀의 부정적 정서는 지속될 수 있다.

2) 지각한 부모 갈등과 결혼에 대한 태도

Bandura(1977)의 사회학습이론은 개인의 행동, 정서 및 인지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습득된다고 강조한다. 자녀가 부모 간에 빈번한 갈등을 직면하면, 자녀는 공격적이고 적대적이며 비건설적인 정서 표현 방식을 대인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다. 자녀는 부모의 갈등 해결 방식을

관찰하고 이를 모방함으로써 또래 관계에서 이러한 대처 방식을 반복하게 되며(Grych & Fincham, 1990), 이로 인해 자신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부적응적인 패턴을 채택하게 된다(송은하 등, 2008). 나아가, 성장 과정에서의 부모는 결혼한 자녀에게 결혼 생활의 중요한 모델이 되며, 자녀는 부모의 부부갈등 해결 방식을 습득할 수 있다(Gager et al., 2016). 이러한 부모 갈등이 많을수록 결혼한 자녀의 부부 상호작용 방식이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부모 갈등은 자녀의 결혼 태도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높은 부모 갈등 수준은 자녀의 결혼 태도를 유의하게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李云, 2024). 또한, 성인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부부갈등은 결혼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녀가 부모의 부부갈등을 높게 인식하는 순간부터 결혼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자녀의 생애 전반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강산성, 김고은, 2022). 부모의 부부갈등이 결혼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 간의 부부갈등 수준이 높거나 부모 갈등 속에서 폭력을 목격했을 경우 결혼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형성되었다(조호리, 2009).

이성희 등(2022)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여대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 가치관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자녀로서 지각한 부부갈등의 정도가 높을수록 결혼 가치관이 개방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 갈등을 많이 보이는 것이 자녀에게 결혼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자녀로 하여금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과거의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결혼을 개인의 선택으로 인식하게 하는 개방적 결혼 가치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미뤄볼 때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간의 갈등은 개인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 부모-자녀 관계

1) 부모-자녀 관계의 개념

부모-자녀 관계는 사회적, 심리적 관계이면서, 존경, 애정, 신뢰, 보호와 의존의 관계로 융화되어 모든 이익에 앞서 고려되는 애정 관계이며(송순옥, 2011),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부모로부터 돌봄 양육을 받는 자녀 간에 지속적, 양방적 상호작용을 맺는 관계이다(조성연 등, 2018).

Schaefer(1959)의 양육태도 모형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애정과 거부, 자율성과 통제, 두 가지 차원을 바탕으로 애정-자율 태도, 애정-통제 태도, 거부-자율 태도, 거부-통제 태도로 구분된다. Parker등(1979)은 Schaefer(1959)의 양육태도 유형을 바탕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돌봄과 과보호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두 차원을 교차시켜 조합을 통해 네 가지 유형-낮은 돌봄과 낮은 과보호의 약한 유대, 높은 돌봄과 높은 과보호의 애정이 있는 통제, 낮은 돌봄과 높은 과보호의 애정이 없는 통제, 높은 돌봄과 낮은 과보호의 최적 유대로 분류했으며, 이를 토대로 부모-자녀 유대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인 부모-자녀 유대 척도(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를 개발하였다. 이후 Parker, Tupling과 Brown(1979)은 높은 돌봄과 낮은 과보호가 결합된 '최적의 유대' 유형을 가장 이상적인 부모-자녀 관계로 간주하였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양육태도는 자녀의 심리적 안전감을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반면, 부모의 과보호는 자녀의 심리적 안전감을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韋耀陽, 周加胜, & 吳迪, 2018). 여러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장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王樹秀, 鄭林科, 1999; 胡江萍, 2006). 또한, 아버지가 자

녀를 양육하는 방식은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버지의 따뜻하고 다정한 양육 방식은 자녀의 심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처벌적이고 과도하게 간섭하는 양육 방식은 자녀의 심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安莉娟, 王欣, 2002; 王磊, 覃曉靜, 2017). 아버지의 과보호와 과도한 간섭은 자녀의 심리 건강의 건전한 발달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王建中, 汪群, 1996). 부모의 따뜻함과 이해는 바람직한 양육태도와 행동으로서 자녀의 성숙한 방어 기제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편애, 거부와 부정, 과도한 간섭과 과보호, 처벌적 태도 등은 자녀의 성숙한 방어 기제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李義安, & 王學臣, 2004).

2) 지각한 부모 갈등과 부모-자녀 관계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은 부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가 영향을 받는다(이승희, 김광웅,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갈등, 부모-자녀 간의 갈등, 스트레스 및 문제 행동의 관계분석에서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갈등은 높은 상호관련성을 나타냈다. 이처럼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갈등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청소년기가 방황과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 부부갈등으로 인해 부모와의 갈등이 더욱 악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소영화, 조한익, 2015).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은 자녀의 심리적 발달 및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 간 갈등이 심한 가정환경에 처한 자녀는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족 구조와 안정성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熊明瑞, 劉偉, & 付瑤, 2022). 부부갈등과 부부 이혼이 모두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부부갈등이 이혼보다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강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熊明瑞, 劉倩와 付瑤(2022)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이 높을수록 부-자녀와 모-자녀의 관계 질이 낮게 나타났으며, 부모 갈등은 모-자녀 관계를 유의미하게 부적으로 예측할 뿐 아니라 부-자녀 관계 질도 유의미하게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부모 갈등이 결혼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자녀 관계의 질은 부분 매개역할을 하며, 부-자녀 관계 질과 모-자녀 관계 질 모두 부모 갈등이 개인의 결혼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사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熊明瑞, 劉倩, & 付瑤, 2022).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이 부모-자녀 관계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3) 부모-자녀 관계와 결혼에 대한 태도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관계는 직·간접적으로 자녀의 출산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대학생이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녀에 대한 가치를 높이 인식하고 결혼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진 등, 2021).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에 따라 결혼 가치관과 배우자 선택조건은 차이가 있는데, 김진희(2014)는 부모-자녀 관계가 좋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결혼을 원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경향이 낮으며,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좋고 자녀가 친밀함을 느낄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며 보수적 결혼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배우자 선택에서는 부모-자녀 관계가 좋지 않은 집단이 외적 조건을 많이 고려하고, 부모-자녀 관계가 좋은 집단이 내적조건을 많이 고려하였다(김진희, 2014).

미혼 남녀가 인식한 부모의 부부 관계, 부모-자녀 관계, 성인 애착의 유형화와 결혼 의향과의 관계를 연구한 박아현과 이지민(2022)은 미혼남녀가 인식한

부모의 부부 관계, 부모-자녀 관계, 성인 애착을 독립변인으로 군집 분석을 하여 '안정적 가족 관계-안정애착형', '불안정적 가족 관계-애착불안 및 애착회피형', '불안정적 가족 관계-애착불안형', '안정적 가족 관계-애착회피형' 과 같은 4개의 군집을 도출하였다. 이 가운데 부모의 부부 관계의 질이 좋고 부모-자녀 관계를 안정적으로 느끼는 '안정적 가족 관계-안정애착형'이 결혼 의향 전체와 정서적 결혼 의향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鍾珮純, 王鍾和와 鍾珮純(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애착 유형이 자녀의 결혼 의향 및 결혼 이미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자녀일수록 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결혼을 더욱 기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鍾珮純, 王鍾和, & 鍾珮純, 2007). 이러한 선행연구들로 미뤄보아,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의 결혼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4. 사회적 지지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유형적, 무형적인 자원으로,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이는 자신이 속한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방향을 제공하며, 인간의 정서적 적응과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Sarason et al., 1983).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를 심리적 안정감, 애정, 친밀감 등을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 자기 평가를 돕는 평가적 지지, 개인의 필요를 직접 도와주는 도구적 지지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중국 전통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호혜성과 장기적 기대

관계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는 단순한 정서적 위안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계에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정서적 지지와 현실적 도움이 다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楊國樞, 余安邦, 1993).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사회 적응과 심리 건강에 뚜렷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楊國樞, 余安邦, 1993).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효과적인 완충제이며, 건강 유지를 도와주는 보조제이자,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하여 문제 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박재암, 2011). 사회적 지지는 친구, 가족, 이웃 등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도움으로 정의되며(박지원, 1985), Holahan과 Moos(1991)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자에 따라 크게 가족 지지와 친구 지지로 나누었다. 가족 지지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긍정적인 가족 지지는 우울증의 감소를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고(김지연, 2010), 친구 지지는 친구들과 함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얻는 즐거움, 심리적 안녕감 등의 긍정적인 자원이다(조한익, 2009).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 적응, 정서적 조절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경완 등, 2013; 신윤정, 2014).

특히 사회적 지지는 낯선 나라에서 다양한 적응 스트레스를 겪는 유학생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언어적 스트레스, 사회문화적 스트레스 등의 적응 문제 때문에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크게 경험한다(이윤희 등, 2022). 하지만 이들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생활할 때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는 여러 측면에서 이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규은 등(2011)의 연구에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중국 유학생들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경우 이들의 주관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2) 지각한 부모 갈등과 사회적 지지

또래 관계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 자원 중 하나이며, 부모의 부부갈등이 아동의 또래 관계의 어려움에 영향을 준다(Gottman & Katz, 1989). 김혜진(2003)의 초등학생 대상 연구에서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자녀가 교사 및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학교 학업과 교내 규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또래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또래기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김혜정, 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부정적 또래 관계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뿐 아니라,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기본심리 욕구 좌절을 통해 부정적 또래 관계 질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지나, 염혜선, 2021).

부모 갈등은 자녀의 또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을 약화시킴으로써 다른 부정적인 영향도 초래할 수 있다. 吳小靜, 張穎萱, 張婉婷, 嚴子文, 楊冰와 董華(2022)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갈등과 공격성 간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부모 갈등이 심하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낮아지고, 또래나 다른 사회 구성원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3) 사회적 지지와 결혼에 대한 태도

김종운(201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결혼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사회적

지지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체육 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가족건강성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임승현 등(2022)은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정보적 지지 요인이 결혼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박주희(2016)는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결혼에 대한 태도, 자녀관, 성역할 인식에서 높은 전통적인 성향을 보고했으며,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 수준과 결혼 의향도 남자 대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대학생들의 경우 결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상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여자 대학생들의 경우 결혼에 따르는 비용을 더 높게 지각하여 결혼의 부정적 측면을 더 민감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여자 대학생들의 경우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원하는 경향을 보이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울 수 있는 가족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는 여자 대학생들의 장래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

曹曉菁와 滕曉琴(2024)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결혼 성향이 더 낮으며,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결혼 의향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들로 미뤄보아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5.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적 지지

Bowlby(1973)는 인간이 생애 초기의 환경 속에서 자신과 양육자에 대한 작동 모델을 발달시키며, 이 모델이 미래의 대인관계 형성과 관계유지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Sarason, Pierce와 Sarason(1990)은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양육자와의 초기관계에서 기원하는 수용 감각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초기 애착관계로부터 형성된 내적 작동 모델이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인의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 관계는 개인이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지

지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한 개인은 보다 풍부한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Furman & Buhrmester, 1992). 부모는 자녀의 사회적 기능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사회적 기능은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Doyle & Markiewicz, 2009).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방법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과 같은 사회적 기능을 학습하고, 이러한 기능을 또래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은 부모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 패턴을 모방하여 이를 사회적 관계에 반영하게 되며, 이는 개인이 습득한 행동 양식이 친밀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Bryant & Conger, 2002; Conger, Cui, Bryant, & Elder, 2002).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백승아, 구본용, 2019). 또한, 지각된 부모애착 수준이 높은 고등학생 집단이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영, 2004). 자녀에 대한 모의 온정적 태도는 청소년이 지각한 친구 지지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은 모의 온정적 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지각한 친구 지지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박상수, 2023).

김중운과 김지현(2013)의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애착 및 사회적 지지가 대학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 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부 애착은 대학생활 적응 하위변인 중 사회적 적응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선화(2019)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자녀 관계는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아가 대학생의 부모-자녀 관계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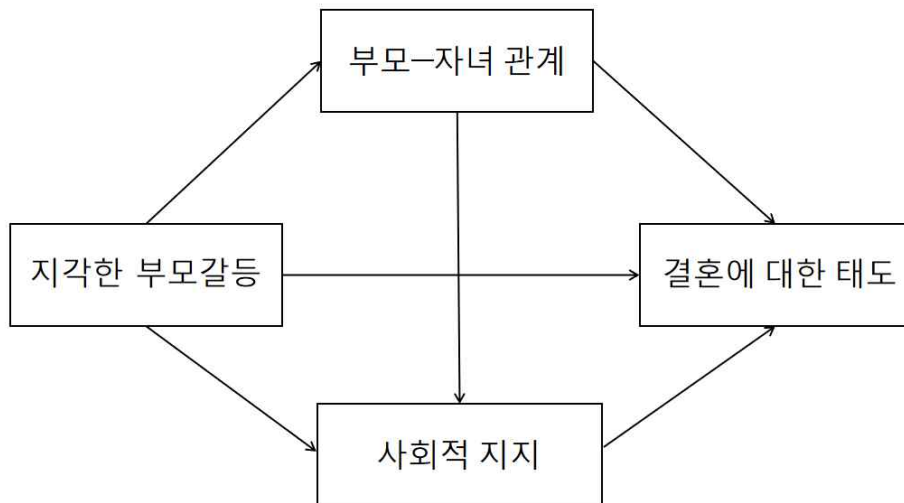
어유경 등(2015)도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은 여대생의 사회적 지지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여대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부모-자녀 간 폐쇄적인 의사소통은 여대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석수진과 김장희(2018)는 대학생이 지각한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는 모두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부-자녀 관계와 모-자녀 관계가 각각 긍정적일수록 사회적 지지와도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의 안정적인 관계가 성인기의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연구문제 및 가설

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이 지각한 부모 갈등과 결혼 태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관계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각각 매개하는지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부모-자녀 관계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순차적인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의 결혼에 대한 태도, 지각한 부모 갈등,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지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가설 1-1.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지각한 부모 갈등과 유의한 부적 상관,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1-2.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의 지각한 부모 갈등은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1-3.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의 부모-자녀 관계는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연구문제 2.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의 지각한 부모 갈등과 결혼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관계 및 사회적 지지는 각각 매개 역할을 하는가?

가설 2-1.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의 지각한 부모 갈등과 결혼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부모-자녀 관계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2-2.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의 지각한 부모 갈등과 결혼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할 것이다.

연구문제 3.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의 지각한 부모 갈등과 결혼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관계 및 사회적 지지는 순차적 매개 역할을 하는가?

가설 3-1.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의 지각한 부모 갈등과 결혼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관계 및 사회적 지지가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IV.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19세~34세 미혼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를 산출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모델을 바탕으로 G*power 프로그램에서 다중회귀로 효과크기 .10, 검증력 .80, 유의수준 .05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 크기는 125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자료 분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응답 수를 의미한다(Faul et al, 2007). 이에 각각한 부모 갈등과 결혼 태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참고한 결과, 최소 323명(강산성, 김고은, 2022)에서 최대 501명(魏祥遷, 陳子楊, & 李夢文, 2019)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에 주제는 다르지만 연구대상이 유사한 다른 선행연구들도 참고하였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169명(김민경, 2014), 357명(웨이이자, 2024), 285명(공훈월, 2024), 365명(왕유준 등, 2021)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평균적으로 대략 3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300명을 연구대상자로 모집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앞서 성신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은 후, 중국에 있는 중국인 해외 유학생 전문 리서치 업체(成華區榕溪科技工作室)를 통해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및 설문 참여 조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 동의를 받은 뒤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중국의 온라인 설문 전문사이트(問卷星www.wjx.cn)를 활용하여 2025년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300부의 설문이 수집되었으나, 2부는 무성의한 응답으로 판단되어 제외

되었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연구 참여자는 총 298명이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97명(32.6%)과 여성 201명(67.4%)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연령 분포는 만 25~29세가 135명(4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19~24세가 128명(42.95%), 만 30~34세가 35명(11.75%)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 참여자의 유학지역은 전국적으로 모집하였으나, 대다수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서울 121명(40.6%), 경기도 43명(14.4%)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충청도는 50명(16.8%), 전라도는 43명(14.4%)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 참여자의 학력은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135명(45.3%), 대학 재학 88명(29.5%),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75명(25.2%)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의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1~2년 60명(20.1%), 5년 이상 59명(19.8), 2~3년 52명(17.4%), 1년 미만 46명(15.4%), 3~4년 42명(14.1%), 4~5년 39명(13.1%) 순으로 나타났다.

<표1>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 분석

(N=298)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백분율(%)
성별	남성	97	32.6
	여성	201	67.4
연령	만19~24세	128	42.95
	만25~29세	135	45.30
	만30~34세	35	11.75
유학 지역	서울특별시	121	40.6
	인천광역시	11	3.7
	대전광역시	3	1.0
	울산광역시	0	0
	광주광역시	4	1.3
	부산광역시	9	3.0
	경기도	43	14.4
	강원도	3	1.0
	충청도	50	16.8
	전라도	43	14.4
	경상도	10	3.4
	제주특별자치도	1	0.3
학력	대학 재학	88	29.5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135	45.3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75	25.2
한국에 거주한 기간	1년 미만	46	15.4
	1~2년	60	20.1
	2~3년	52	17.4
	3~4년	42	14.1
	4~5년	39	13.1
	5년 이상	59	19.8

2. 측정 도구

1) 지각한 부모 갈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Black과 Pedro-Carroll(1993)이 성인 초기를 대상으로 지각된 부모의 갈등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하고 陳毓文(2004)가 중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한 부모 갈등 척도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IC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현재의 부모 갈등에 관한 3문항(“요즘, 부모님은 얼마나 자주 싸우십니까?”)과 과거의 부모 갈등에 관한 7문항(“당신이 성장하는 동안 부모님은 얼마나 자주 싸우셨습니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1(절대 아니다)에서 5(매우 자주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간의 갈등의 정도를 자녀가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lack과 Pedro-Carroll(199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85이고, 陳毓文(200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계수는 .87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현재 부모의 갈등 .79, 과거 부모의 갈등 .80, 전체 부모의 갈등 .87로 나타났다.

<표 2 > 지각한 부모 갈등 척도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계수 (N=298)

하위 척도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현재 부모의 갈등	4, 5, 6	3	.79
과거 부모의 갈등	1, 2, 3, 7*, 8, 9, 10	7	.80
전체		10	.87

*은 역채점 문항

2) 부모-자녀 관계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Parker, Tupling과 Brown (1979)이 개발하고 高明(2011)이 번안한 부모-자녀 관계 척도(Parental Bonding Instrument-Korean Version : PBI)를 사용하였다. 부모-자녀 관계 척도는 자녀가 16세 이전 시기의 부모의 태도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부모와 자기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해 주셨다.”와 같은 돌봄 12문항과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섭하려 하셨다.”와 같은 과보호 13문항,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항목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의 Likert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돌봄은 부모의 따뜻한 태도와 애정, 이와 대조되는 무관심과 무시를 평가하는 하위요인으로, 돌봄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에서 돌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과보호는 부모의 과잉보호나 통제, 간섭, 이와 대조되는 자율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걱리를 평가하는 하위요인으로, 과보호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과보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er, Tupling과 Brown(1979)의 연구에서 어머니 과보호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6, 아버지 과보호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90, 어머니 돌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1, 아버지 돌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92이었다. 高明(2011)이 표준화한 중국판 부모-자녀 유대관계 척도의 연구에서 어머니-자녀 유대감 문항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729, 아버지-자녀 유대감 문항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747이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과보호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3, 아버지 과보호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1, 어머니 돌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92, 아버지 돌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92로 나타났다. 전체 Cronbach's alpha 계수는 부모의 돌봄 .92, 부모

의 과보호 .88, 부모-자녀 유대관계 .92로 나타났다.

<표 3> 부모-자녀 관계 척도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계수 (N=298)

하위 척도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돌봄	1, 2, 4*, 5, 6, 11, 12, 14, 16*, 17, 18, 24	12	.92
과보호	3, 7, 8*, 9*, 10*, 13*, 15, 19*, 20*, 21, 22, 23*, 25	13	.88
전체		25	.92

*은 역채점 문항

3) 사회적 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는 Gregory 등(1988)이 개인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지각한 사회적 지지(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姜乾金(2000)이 번안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MSPSS는 “나의 가족은 진심으로 나를 돕고자 한다.”와 같은 가족, “내 친구들은 진심으로 나를 돕고자 한다.”와 같은 친구,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와 같은 유의미한 주변인의 세 자원으로부터 인지되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12항목으로 만들어진 척도이다. 세 자원으로부터 인지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Gregory 등(198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88이었다. 중국 학자 姜乾金(2001)이 중국판으로 표준화한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90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가족 .90, 친구 .88, 유의미한 주변인 .89, 전체 사회적 지지 .92로 나타났다.

<표 4 > 사회적 지지 척도 문항 구성과 신뢰도 계수

(N=298)

하위 척도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가족	3, 4, 8, 11	4	.90
친구	6, 7, 9, 12	4	.88
유의미한 주변인	1, 2, 5, 10	4	.89
전체		12	.92

4) 결혼 태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결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Braaten과 Rosén(1998)이 개발하고 庾泳, 肖水源, 王希와 孫錚(2011)이 번안한 결혼 태도 척도 (Marital Attitude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내 평생의 꿈 중에는 행복한 결혼이 있다.”와 같은 현재 또는 “나는 결혼하면 만족한 결혼생활을 할 것이다.”와 같은 미래의 결혼에 대한 느낌을 묻는 6문항과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묻는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문항이다. 각 항목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의 Likert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좋고, 현재 또는 미래의 결혼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대로 점수가 낮을수록 결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나쁘고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Braaten과 Rosén(199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0.738이었다. 중국 학자 庾泳등(2011)은 Braaten과 Rosén(1998)이 개발한 결혼 태도 척도를 기반으로 중국어판으로 표준화하였고,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9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현재 또는 미래의 결혼에

대한 느낌 .82,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79, 전체 결혼 태도 .88로 나타났다.

<표 5 > 결혼 태도 척도 문항 구성과 신뢰도 계수 (N=298)

하위 척도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현재 또는 미래의 결혼에 대한 느낌	1, 3, 4*, 8, 9*, 10*, 11, 12*, 13*, 14*, 16*, 18*, 19*, 20	14	.82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2*, 5, 6*, 7*, 15, 17	6	.79
전체		20	.88

*은 역채점 문항

3. 통제변인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별은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김은희, 정구철, 2022; 김은진 등, 2022; 汪娟, 2021; 김은진, 고경자, 2022; 李月, 成前, 滕素芬, 2025). 실제로, 대학생의 가족 가치관이 결혼에 대한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朱悅(2021)의 연구에서는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바 있다. 또한, 何昊昉(2022)는 사람들의 결혼 관념 및 결혼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속한 사회적 배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라 지각한 부모 갈등($t=3.369, p<.001$)과 결혼에 대한 태도($t=5.076,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도 결혼에 대한 태도($F=3.271,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한국에 거주한 기간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7.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 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 표본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넷째,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지각한 부모 갈등, 결혼에 대한 태도, 부모-자녀 관계, 지각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지각한 부모 갈등과 결혼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관계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순차적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6(Hayes, 2013)을 활용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V.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측정 변인들의 정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모든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지각한 부모 갈등은 2.77($SD=.79$), 부모-자녀 관계는 2.91($SD=.43$), 사회적 지지는 4.92($SD=1.27$), 결혼에 대한 태도는 2.51($SD=.57$)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왜도값은 -.38에서 .19 사이, 첨도값은 -.48에서 -.08 사이에 분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왜도는 절대값 3 미만, 첨도는 절대값 8 미만을 기준으로 정규성을 가정하였다(Kline, 2015). 분석결과, 모든 변인에서 왜도와 첨도의 기준 절대값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표6>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N=298$)

변인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지각한 부모 갈등	2.77	.79	.19	-.48
부모-자녀 관계	2.91	.43	-.28	-.08
사회적 지지	4.92	1.27	-.38	-.13
결혼에 대한 태도	2.51	.57	-.06	-.43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지각한 부모 갈등,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지지, 결혼에 대한 태도의 차이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구체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지각한 부모 갈등이 유의하게 높았고($t = 3.369, p < .001$), 결혼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 = 5.076, p < .001$). 한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결혼에 대한 태도($F = 3.271, p < .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유학 지역, 학력에 따라서는 지각된 부모 갈등,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지지,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분석

(N=298)

변인		지각한 부모 갈등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지지		결혼에 대한 태도	
		M(SD)	t/F	M(SD)	t/F	M(SD)	t/F	M(SD)	t/F
성별	남성	2.55(.79)	-3.369***	2.89(.47)	-.540	4.78(1.23)	-1.308	2.75(.58)	5.076***
	여성	2.88(.77)		2.92(.41)		4.99(1.28)		2.4(.54)	
연령	만19~24세	2.78(.78)	.824	2.91(.43)	.297	4.97(1.20)	.538	2.48(.56)	.301
	만25~29세	2.71(.82)		2.93(.43)		4.92(1.33)		2.53(.60)	
	만30~34세	2.91(.77)		2.87(.45)		4.72(1.29)		2.54(.55)	
유학 지 역	서울특별시	2.82(.76)	.427	2.93(.40)	.247	5.03(1.23)	1.005	2.45(.55)	.956
	인천광역시	2.95(1.05)		2.86(.44)		4.19(1.52)		2.30(.35)	
	대전광역시	2.50(.61)		2.85(.10)		4.19(.21)		2.32(.67)	
	울산광역시	-		-		-		-	
	광주광역시	2.70(1.23)		2.67(.79)		5.46(1.75)		2.36(.79)	
	부산광역시	2.57(.81)		2.81(.51)		4.65(1.64)		2.62(.37)	
	경기도	2.74(.80)		2.92(.45)		5.00(1.17)		2.53(.65)	
	강원도	2.83(.78)		2.85(.32)		5.19(1.00)		2.70(.70)	
	충청도	2.72(.81)		2.93(.48)		4.80(1.42)		2.68(.59)	
	전라도	2.83(.83)		2.91(.40)		4.88(1.03)		2.49(.52)	
경상도	2.45(.63)	2.88(.51)	5.02(1.50)	2.67(.77)					
제주특별자치도	2.40(.)	2.94(.)	7.00(.)	2.20(.)					
학력	대학 재학	2.72(.75)	.652	2.84(.43)	2.485	4.85(1.28)	.218	2.53(.59)	.696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2.83(.82)		2.96(.41)		4.93(1.28)		2.47(.57)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2.72(.79)		2.90(.45)		4.98(1.24)		2.56(.57)	
한국 거주 기간	1년 미만	2.62(.66)	1.423	2.92(.37)	1.487	5.07(1.06)	.468	2.67(.47)	3.271**
	1~2년	2.83(.81)		2.92(.38)		5.01(1.20)		2.45(.61)	
	2~3년	2.88(.88)		2.84(.45)		4.78(1.59)		2.40(.56)	
	3~4년	2.82(.84)		2.82(.44)		4.75(1.10)		2.67(.63)	
	4~5년	2.91(.72)		2.92(.47)		4.94(1.29)		2.29(.61)	
5년 이상	2.60(.78)	3.02(.44)	4.95(1.29)	2.59(.49)					

* $p < .05$, ** $p < .01$, *** $p < .001$

3. 주요 변인들의 상관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지각한 부모 갈등,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지지, 결혼에 대한 태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구체적으로 변인에 따라 살펴보면 지각한 부모 갈등은 부모-자녀 관계($r = -.479, p < .001$), 사회적 지지($r = -.348, p < .001$), 결혼에 대한 태도($r = -.297, p < .0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부모-자녀 관계는 사회적 지지($r = .530, p < .001$), 결혼에 대한 태도($r = .297, p < .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결혼에 대한 태도($r = .312, p < .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한편, 주요 변인의 하위 요인 간 상관을 추가로 살펴본 결과, 일부 하위 요인 간에는 유의하지 않은 상관이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는 사회적 지지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부모-자녀 관계의 하위 요인 아버지 과보호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 친구 지지와 유의하지 않은 정적 상관($r = .085, p = .142$), 유의미한 주변인 지지와 유의하지 않은 부적 상관($r = -.013, p = .817$)이 나타났다. 전체적인 결과는 <표 8>와 같다.

〈표 8〉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N=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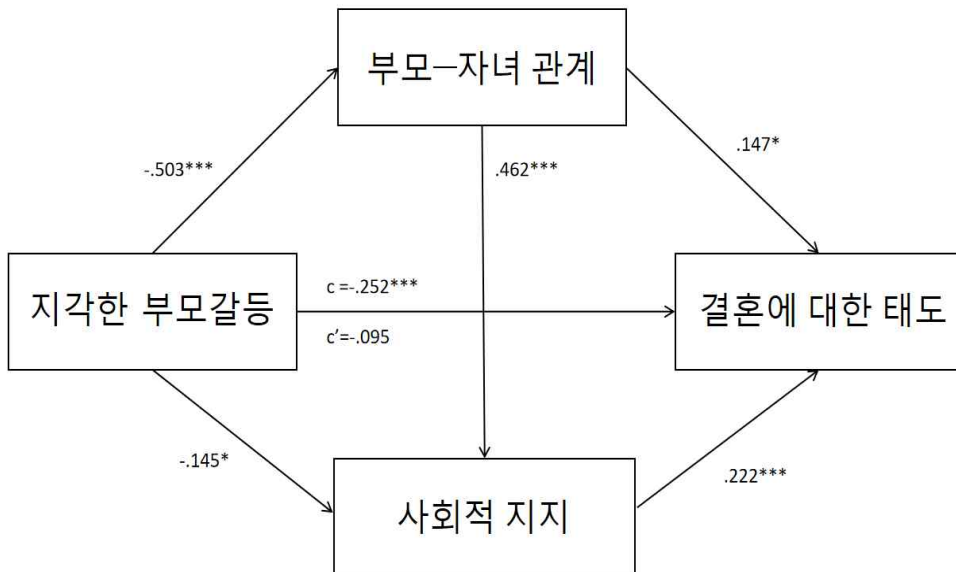
	1	1a	1b	2	2a	2b	2c	2d	3	3a	3b	3c	4	4a	4b
1															
1a	.877***														
1b	.968***	.728***													
2	-.479***	-.369***	-.490***												
2a	-.405***	-.273***	-.435***	.638***											
2b	-.254***	-.207***	-.255***	.692***	.171*										
2c	-.379***	-.323***	-.372***	.774***	.370***	.324***									
2d	-.314***	-.245***	-.320***	.770***	.179*	.606***	.497***								
3	-.348***	-.243***	-.370***	.530***	.520***	.123*	.515***	.304***							
3a	-.408***	-.308***	-.421***	.671***	.639***	.240***	.640***	.342***	.791***						
3b	-.255***	-.173*	-.273***	.367***	.332***	.085	.338***	.264***	.882***	.511***					
3c	-.223***	-.136*	-.247***	.307***	.346***	-.013	.327***	.169**	.883***	.493***	.763***				
4	-.297***	-.210**	-.314***	.297***	.276***	.150**	.239***	.169**	.312***	.343***	.239***	.212***			
4a	-.260***	-.183**	-.275***	.265***	.225***	.154**	.199***	.171**	.274***	.295***	.217***	.187***	.965***		
4b	-.310***	-.220**	-.327***	.304***	.317***	.118*	.268***	.138*	.324***	.368***	.237***	.219***	.892***	.743***	

* $p < .05$, ** $p < .01$, *** $p < .001$

1.지각한 부모 갈등, 1a.현재 부모의 갈등, 1b.과거 부모의 갈등, 2.부모-자녀 관계, 2a.아버지 돌봄, 2b.아버지 과보호, 2c.어머니 돌봄, 2d.어머니 과보호, 3.사회적 지지, 3a.가족 지지, 3b.친구 지지, 3c.유의미한 주변인 지지, 4.결혼에 대한 태도, 4a.현재 또는 미래의 결혼에 대한 느낌, 4b.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4. 매개효과 검증

지각한 부모 갈등과 결혼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5)가 제안한 직렬다중매개모형 분석 방법인 SPSS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성별과 한국에 거주한 기간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종합한 최종 모형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 $p < .05$, ** $p < .01$, *** $p < .001$, c = 총 효과, c' = 직접 효과

<그림 2> 최종 모형 (표준화 회귀계수)

첫째, 결혼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지각한 부모 갈등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7.732$, $p<.001$), 모형의 설명력은 14.30%로 나타났다($R^2=.143$).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지각한 부모 갈등의 영향은 부정적으로 유의하였다($\beta=-.252$, $p<.001$). 즉 지각한 부모 갈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자녀 관계를 예측하는 지각한 부모 갈등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28.216$, $p<.001$), 모형의 설명력은 24.93%로 나타났다($R^2=.249$).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지각한 부모 갈등의 영향은 부정적으로 유의하였다($\beta=-.503$, $p<.001$). 즉 지각한 부모 갈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를 예측하는 지각한 부모 갈등과 부모-자녀 관계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24.866$, $p<.001$), 모형의 설명력은 30.38%로 나타났다($R^2=.304$).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한 부모 갈등의 영향은 부정적으로 유의하였고($\beta=-.145$, $p<.05$), 부모-자녀 관계의 영향은 사회적 지지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eta=.462$, $p<.001$). 즉 지각한 부모 갈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결혼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지각한 부모 갈등,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지지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9.664$, $p<.001$), 모형의 설명력은 22.38%로 나타났다($R^2=.224$).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결혼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지각한 부모 갈등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095$, $p=.174$).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부모-자녀 관계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고($\beta=.147$, $p<.05$), 사회적 지지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eta=.222$, $p<.001$). 즉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그리고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지만, 지각한 부모 갈등은 더 이상 결

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지각한 부모 갈등은 결혼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후 지각한 부모 갈등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표9> 매개효과 검증 결과

(N=298)

준거변인	예측변인	B	SE	β	t	F	R ²
결혼에 대한 태도	지각한 부모 갈등	-.183	.044	-.252	-4.124***		
	성별	-.290	.073	-.237	-3.980***	17.732***	.143
	한국에 거주한 기간	-.014	.017	-.044	-.853		
부모-자녀 관계	지각한 부모 갈등	-.271	.031	-.503	-8.771***		
	성별	.120	.051	.131	2.357*	28.216***	.249
	한국에 거주한 기간	.016	.012	.065	1.344		
사회적 지지	지각한 부모 갈등	-.231	.113	-.145	-2.052*		
	부모-자녀 관계	1.371	.213	.462	6.432***	24.866***	.304
	성별	.232	.133	.086	1.742		
	한국에 거주한 기간	-.044	.033	-.060	-1.322		
결혼에 대한 태도	지각한 부모 갈등	-.069	.050	-.095	-1.365		
	부모-자녀 관계	.197	.088	.147	2.240*		
	사회적 지지	.100	.028	.222	3.653***	19.664***	.224
	성별	-.353	.071	-.289	-4.997***		
	한국에 거주한 기간	-.015	.016	-.047	.955		

* $p < .05$, ** $p < .01$, *** $p < .001$

5. 간접효과 검증

지각한 부모 갈등과 결혼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적 지지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10,000회 반복하여 실시하였으며, 95%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자세한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첫째, 지각한 부모 갈등이 부모-자녀 관계를 거쳐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경로의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74$, $CI = -.142 \sim -.009$). 즉, 지각한 부모 갈등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한 부모 갈등이 사회적 지지를 거쳐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경로의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32$, $CI = -.072 \sim -.001$). 즉, 지각한 부모 갈등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각한 부모 갈등이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적 지지를 순차적으로 거쳐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경로의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52$, $CI = -.089 \sim -.023$). 즉, 지각한 부모 갈등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적 지지를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적 지지를 투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적 지지를 투입한 후 지각한 부모 갈등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직접효과의 유의도가 상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beta = -.252$, $p < .001 \rightarrow \beta = -.095$, $p = .174$). 따라서 지각한 부모 갈등과 결혼

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적 지지가 순차적으로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간접효과 Bootstrapping 결과 (N=298)

간접효과 경로	β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지각한 부모 갈등 → 부모-자녀 관계 → 결혼에 대한 태도	-.074	.034	-.142	-.009
지각한 부모 갈등 → 사회적 지지 → 결혼에 대한 태도	-.032	.019	-.072	-.001
지각한 부모 갈등 → 부모-자녀 관계 → 사회적 지지 → 결혼에 대한 태도	-.052	.017	-.089	-.023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한 부모 갈등과 결혼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과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요 변인 간에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 1-1, 1-2, 1-3을 지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지각한 부모 갈등과 결혼에 대한 태도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부모 갈등을 더 많이 지각할수록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가치관이 개방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이성희 등(202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지각한 부모 갈등과 부모-자녀 관계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부모 갈등이 더 많이 지각할수록 부모-자녀 관계 또한 원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갈등과 부모-자녀 간 갈등이 높은 상관을 가진다고 보고한 소영화와 조한익(20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지각한 부모 갈등과 사회적 지지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부모 갈등을 더 많이 지각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덜 느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吳小靜, 張穎萱, 張婉婷, 嚴子文, 楊冰, 董華(2022)의 연구에서도 부모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뿐만 아니라 또래 및 기타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지각한 부모 갈등과 사회적 지지 간의 부적 상관 결과와 일치한다. 부모-자녀 관계와 결혼에 대한 태도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결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김은진 등(202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사회적 지지와 결혼에 대한 태도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할수록 결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결혼 의향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曹曉菁, 滕曉琴, 2024).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적 지지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김종운, 김지현, 2013), 아동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고되었다(백승아, 구본용, 2019; 박은영, 2004). 또한, 신선화(2019)와 석수진, 김장희(2018)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애착 이론(Bowlby, 1973)과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즉,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서적 안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더 넓은 대인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가 지각한 부모 갈등과 결혼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의 가설 2-1을 지지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지각한 부모 갈등이 부모-자녀 관계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부부 간 갈등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친밀한 부모-자녀 관계의 형성을 방해하고, 부모-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이승희, 김광웅, 2004; 熊明瑞, 劉倩, & 付瑤, 2022). 또한,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 결과는 김은진 등(202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결국, 지각한

부모 갈등은 부모-자녀 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결혼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한 부모 갈등 수준과 성인 자녀의 결혼 태도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자녀 관계 및 어머니-자녀 관계가 매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熊明瑞, 劉倩, & 付瑤, 2022). 개인이 성장 과정에서 부모 간의 갈등을 자주 목격하게 되면 심리적 안정이 저해될 수 있고, 이후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부모-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張娥, 訾非, 2012). 그리고 이러한 가족 내 불화는 자녀가 친밀감을 경험하는 기회를 감소시키며,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결혼관을 형성할 가능성을 높인다(김진희, 2014). 가족체계이론(Bowen, 1978)에 따르면, 가족은 상호작용하는 체계로서 가족 관계 중 한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는 다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각관계 개념에 의하면, 부부갈등은 자녀를 중재자로 개입시키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삼각관계는 원래 안정적이던 부모-자녀 관계를 훼손시켜 자녀가 부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게 만들고, 이에 따라 정서적 지지와 안전감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가족체계이론은 가족 내 상호작용 양상이 세대를 거쳐 반복적으로 전승될 수 있다고 보며, 개인은 자신의 원가족에서 경험한 관계 양상을 결혼 및 대인관계에서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애착 이론(Bowlby, 1973)에 따르면, 유아기에 주양육자와 형성된 애착 유형은 성인이 된 이후의 대인관계 및 친밀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부모-자녀 관계가 부정적일 경우 개인은 회피 애착 또는 불안 애착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으로 이어져 결혼에 대한 동기가 낮아지고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박아현, 이지민, 2022; 鐘珮純, 王鍾和, & 鐘珮純, 2007; 趙嫻, 張雨青, 2020).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부모 갈등과 결혼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의 가설

2-2를 지지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지각한 부모 갈등은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 갈등이 자녀의 또래 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모 갈등이 심할수록 자녀는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ottman & Katz, 1989; 김혜정, 2005). 이처럼 지각한 부모 갈등은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손상시켜 정서적 안정을 감소(洪海珠, 2023)시킴으로써 성장 과정에서 외부의 지지 자원을 인식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결혼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자신이 가진 결혼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김종운과 이정희(201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와 가족 건강이 체육 전공 대학생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임승현 등(2022)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 하위 요인 중 정보 지지가 결혼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부족할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 및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 과정에서 불안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태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高玉嬌, 2020)을 시사한다. 楊林平(2024)은 부모 갈등이 중학생 자녀의 사회적 불안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갈등이 심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 어렵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낮은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또한 핀란드의 한 종단 연구(Mustonen et al., 2011)에서는 아동기 부모의 이혼이 여성의 성인기 친밀한 관계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들은 부모와 떨어져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부모의 영향보다는 친구나 또래와 같은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연구에서도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사회적 지지를 거쳐 친밀한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부모의 갈등을 경험한 유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모와 떨어져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비단 어린 시절 부모와의 경험이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 지각한 부모 갈등은 현재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사회적 지지가 원가족 내 갈등 경험과 성인기 친밀한 관계 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심리적 기제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적 지지가 지각한 부모 갈등과 결혼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에서 완전한 순차적 매개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가설 3-1을 지지하였다. 지각한 부모 갈등은 먼저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지각한 부모 갈등은 부모-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소영화, 조한익, 2015; 張娥, 訾非, 2012; 이승희, 2004; 熊明瑞, 劉倩, & 付瑤, 2022), 개인이 부모와 형성한 애착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박은영, 2004; 박상수, 2023; 김종운, 김지현, 2013).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자녀 관계가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고(신선화, 2019; 석수진, 김장희, 2018), 본 연구에서도 부모-자녀 관계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순차적 완전 매개 경로는 지각한 부모 갈등이 자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거쳐 이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변화시키고, 이는 결국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부모와 떨어져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의 경우, 이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경험이나 관계로 인해 비롯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거쳐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유학생들이 현재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지각한 부모 갈등이 이들의 결혼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이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 결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결국 결혼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적 개입 측면에서 볼때, 부모와의 관계는 이미 과거에 발생한 것이므로 현재 이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본 연구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이 부모-자녀 관계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통해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혀냄으로써, 개인의 결혼 태도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부모-자녀 관계의 질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周燕, 燕周, 2000),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좌절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박재암, 조민행, 2011).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자녀가 가족이나 친구 등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개인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완화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을 연구참여자로 하여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다문화적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중국과 한국에서의 선행연구들은 원가족 경험이 개인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왔다(毛雨欣, 2024; 강산성, 김고은, 2022; 조호리, 2009). 그러나 다문화적 배경에서 부모 갈등이 어떤 심리적 과정을 통해 자녀의 결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룬 연구는 아직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Berry(1992)의 문화적응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정도와 새로운 문화에 대해 수용하는 정도를 바탕으로 기존 문화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영향을 받아 융합할 수 있다. 이러한 적응 과정은 개인의 가치관과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叶浩生, 2004). 중국 유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미디어, 또래 집단이나 사회 분위기 등을 통해 이러한 결혼 회피 현상을 내면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학생 집단은 새로운 문화 및 사회 매락에 놓인 특수성을 지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의 구체적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문화적응이 개인의 가치관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적 배경 속에서 나타나는 심리 및 행동 변화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표본에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참여자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은 결혼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이고, 부모 갈등은 보다 민감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결혼에 대한 태도는 보다 독립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고, 결혼하는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劉伯凡, 劉叶, 2018). 이렇듯 여성 고학력자가 연구대상자에 많이 포함된 점은 부모 갈등에 대한 지각과 결혼 태도 사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관련 변인 간의 관계에서 성별과 학

력이 가지는 작용 기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 결과는 결혼 교육 및 상담 장면에서의 개입에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부모의 전통적 결혼관의 차이로 인해 많은 가정이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譚素怡, 2020). 일부 부모는 자녀의 결혼 태도에 대한 걱정과 불안, 자녀와의 심한 갈등으로 인해 스스로 혹은 자녀와 함께 심리상담을 요청한다(王陽, 馬小雷, 2019; 王吉慶, 2024). 본 연구는 개인의 결혼 태도가 지각한 부모 갈등, 부모-자녀 관계 및 사회적 지지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밝혀내어, 상담자가 이러한 자녀들의 부정적인 결혼 태도의 원인과 기제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부모 갈등이 심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여 부정적인 결혼 태도를 형성한 개인의 경우, 과거에 발생한 부모의 관계나 가족 갈등을 다루기 보다는 현재 생활에서 사회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획득하도록 돕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개입의 관점에서 보면, 지각한 부모 갈등과 부모-자녀 관계는 개인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 경험이기 때문에 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반면, 개인이 현재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는 더 큰 개입 가능성을 지닌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는 우선적으로 내담자의 현재 생활 속에서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강화하고, 친구나 또래 및 유의미한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이고, 이후 부모-자녀 관계를 다룸으로써 결혼에 대한 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상담 장면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다룰 때 내담자의 성장 경험과 결혼관의 형성 배경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내담자가 속한 문화적 배경과 관계 맥락 속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 체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 중 여성은 67.4%, 남성은 32.6%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고, 연구 참여자의 유학 지역은 서울

(40.6%), 경기도(14.4%), 충청도(16.8%), 전라도(14.4%)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성별 및 지역의 불균형은 연구 결과의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 선정 시 성별 및 지역의 균형을 고려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개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기에 인과관계 추론의 확실성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Maxwell & Cole, 2007).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수는 시간의 흐름과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 갈등,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지지 및 결혼에 대한 태도를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인과 경로와 메커니즘을 보다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 유학생들의 가정 경제 상황에는 개인차가 클 수 있으며, 경제적 스트레스는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박지수, 이재림, 2016; 권소영 등, 2017; 陸華東, 2011; 沈洋, 汪森濤, 202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 상황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지지 등 심리적 요인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인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보다 포괄적인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기반으로 측정되는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은 가족 배경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의 개인 특성과 상황적 요인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이해와 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개인 특성의 작용과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발달된다(叶俊杰, 2005). 또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과 자원 및 사

회 계층에 따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선택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范曉光, 2012). 이러한 요인들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인의 이해와 지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와 같은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사회적 지지가 결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산성, 김고은 (2022). 부모의 부부갈등이 성인자녀의 결혼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인문사회** 21, 13(5), 579-594.
- 권소영, 강시은, 엄세원, 박지수, 이재림 (2017). 청년 남녀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세대관계 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4), 3-25.
- 권호인 (2012). 아동 청소년기 우울증의 예방 개입에 대한 고찰. **인지행동치료**, 12(1), 21-41.
- 강산성, 김고은 (2022). 부모의 부부갈등이 성인자녀의 결혼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인문사회** 21, 13(5), 579-594.
- 김건영 (2009). **대학생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리 (2009). **가족생태이론에 기초한 미혼 남녀의 결혼관과 관련변인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진, 고경자, 정혜정 (2022).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경험 변인과 결혼동기 및 결혼가치관의 관계-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가족과 가족치료**, 30(2), 277-305.
- 김은진, 정혜정, 정유진 (2022). 대학생이 지각한 자녀가치와 결혼동기 및 부모와의 관계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다집단 경로분석. **가정과삶의질연구**, 40(1), 27-39.
- 김은희, 정구철 (2022). 지각된 부-모 관계의 질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가족탄력성과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7(2), 377-384.
- 김중운, 김지현 (2013).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9), 248-259.
- 김중윤, 이정희 (201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성인애착, 사회적 지지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3), 677-700.
- 김지연 (2010). **우울증환자의 희망정도와 가족지지가 극복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 좌동훈, 박세경, 한미경, 최수정 (2015). **아동·청소년·가족 보호 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56.
- 김진희 (2014). 대학생이 인식한 부모-자녀관계 특성에 따른 결혼가치관 및 배우자 선택조건. **한국생활과학회지**, 23(3), 395-408.
- 김혜정 (2005).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기개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진 (2003).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관계 및 아동의 학교적응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수경, 이무영, 박상희 (2009).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가족복지학**, 14(4), 137-153.
- 박상수 (2023). 부모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30(6), 339-366.
- 박아현, 이지민 (2022). 미혼남녀가 인식한 부모의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성인애착의 유형화와 결혼의향과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6(4), 33-50.
- 백승아, 구본용 (2019).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초기부적응도식, 내면아이 및 분노표현방식 간의 구조 관계 검증. **청소년학연구**, 26(1), 103-130.
- 박우 (2009). 재한 중국 유학생의 이주현황과 특성에 관한 연구-한족, 조선족 유학생 비교를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19, 155-181.

- 박은영 (2004). **여고생의 애착이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암, 조민행 (2011).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스포츠참여 및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5(1), 17-28.
- 박주희 (2016). 가족가치관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가 남녀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연구**, 34(4), 21-35.
- 박지수, 이재림 (2016).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청년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진로기대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부모의 진로기대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62-263.
- 박지원 (1986).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간호학논집-연세대학교**, 9(1), 22-31.
- 박혜민, 전귀연 (2018). 미혼남녀의 정서적·당위적·기능적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4), 53-80.
- 백승아, 구본용 (2019).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초기부적응도식, 내면아이 및 분노표현방식 간의 구조 관계 검증. **청소년학연구**, 26(1), 103-130.
- 석수진, 김장희 (201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와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교류분석상담연구**, 8(2), 19-35.
- 소영화, 조한익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부모-자녀갈등,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의 구조적 관계분석. **아동교육**, 24(2), 229-248.
- 송순옥 (201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학교생활 스트레스, 희망감이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은하, 정은정, 방희정, 옥정 (2008). 부부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정서적 안정성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

12(1), 1-13.

- 신선화 (2019). 부모-자녀 관계와 대학 적응 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0), 421-431.
- 신윤정 (2014).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 스트레스 간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8), 243-263.
- 어유경, 정안숙, 박수현 (2015). 여자 대학생의 일상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4), 571-589.
- 왕유준, 오인수, 류신혜 (2021). 중국인 유학생의 코로나 스트레스가 정신건강과 상호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52(3), 169-194.
- 웨이이자 (2024). 재한 중국 유학생의 감성지능이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안녕감 및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대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지나, 염혜선 (2021).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좌절, 친사회적 행동 및 부정적 또래관계 질의 구조적 관계. **한국교육문제연구**, 39(3), 205-228.
- 윤홍식 (2006).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 2010'의 평가와 전망. **젠더리뷰**, 1, 24-33.
- 이규은, 염영희, 장혜경 (2011).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3), 514-523.
- 이경완, 문인오, 박숙경 (2013).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14(2), 15-27.
- 이성희, 신정원, 양지원, 이다예, 전예원, 정혜련, 조희경 (2022). 여대생이 지

- 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양성평등의식, 진로포부가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경북간호과학지**, 26(1), 51-60.
- 이승희, 김광웅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간 갈등 및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행동문제. **인간발달연구**, 11(1), 129-143.
- 이윤희, 홍소은, 이은별, 양은주 (2022).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대한 질적 메타요약.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9(2), 125-157.
- 이은섭 (2002).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형득 (1982). **인간관계훈련의 실제**.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임승현, 김명미, 박상섭 (2022). 체육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가족건강성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기술경영**, 7(3), 51-67.
- 조성연, 이미란, 최혜영, 박진재, 박진아 (2018). 부모교육. 서울: 신정.
- 조한익 (2009).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검증. **초등교육연구**, 22(3), 65-87.
- 조호리 (2009). 성인초기 미혼남녀의 부모간의 갈등과 자기분화가 결혼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선례 (2018). 저소득가정 아동의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친구지지, 교사지지와 아동의 행복감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지역사회 생활과학회지**, 29(2), 207-219.
- 진미정, 정혜은 (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2005 년, 2009 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31-51.
- 최아라, 이숙 (2017). 청소년의 기질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5(3), 249-261.

- Beck, U., & Beck-Gernsheim, E. (2001).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 Blagojevic, M. (1989). The attitudes of young people towards marriage: From the change of substance to the change of form. *Marriage & Family Review*, 14(1-2), 217-238.
- Blodgett Salafia, E. H., Schaefer, M. K., & Haugen, E. C. (2014). Connections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girls' disordered eating: Parent - adolescent relationship quality as a mediator.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3, 1128-1138.
- Braaten, E. B., & Rosén, L. A.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arital Attitude Scale.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29(3-4), 83-91.
- Bryant, C. M., & Conger, R. D. (2002). An intergenerational model of romantic relationship development. *Stability and change in relationships*, 57-82.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
- Collins, W. A., & Sroufe, L. A. (1999). Capac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A developmental construction. *The development of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125-147.

- Cui, M., Conger, R. D., Bryant, C. M., & Elder Jr, G. H. (2002). Parental behavior and the quality of adolescent friendships: A social contextual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3), 676-689.
- Coontz, S. (2005). *History: From Obedience to Intimacy, or How Love Conquered Marriage*. New York: Viking Penguin, 5.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387.
- Dennison, R. P., & Koerner, S. S. (2006). Post-divorce interparental conflict and adolescents' attitudes about marriage: The influence of maternal disclosures and adolescent gender.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45*(1-2), 31-49.
- Diener, E., & Ryan, K. (2009). Subjective well-being: A general overview. *South African journal of psychology*, *39*(4), 391-406.
- Doyle, A. B., & Markiewicz, D. (2009). Attachment style with father and mother in early adolescence: Gender differences and perceived peer compet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Developmental Science*, *3*(1), 80-93.
- Emery, R. E., & O'Leary, K. D. (1984).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in a nonclinic sampl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411-420.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1), 103-115.

- Fallahchai, R., & Fallahi, M. (2019). Gender differences in expectations, purposes and attitudes to marriage in university students. *Iranian Evolutionary and Educational Psychology Journal*, 1(1), 42-50.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07).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 Feng, D., Giarrusso, R., Bengtson, V. L., & Frye, N. (1999).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quality and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1-463.
- Gottman, J. M., & Katz, L. F.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73.
- Gager, C. T., Yabiku, S. T., & Linver, M. R. (2016). Conflict or divorce? Does parental conflict and/or divorce increase the likelihood of adult children's cohabiting and marital dissolution?. *Marriage & Family Review*, 52(3), 243-261.
- Georgsson, A., Almqvist, K., & Broberg, A. G. (2011). Dissimilarity in vulnerability: Self-reported symptoms among children with experienc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2, 539-556.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2), 267.
- Heider, F.(1964).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Sona, Inc.

- House, J. S., Umberson, D., & Landis, K. R. (1988). Structures and processes of social support. *Annual review of sociology*, *14*(1), 293-318.
- Holahan, C. J., & Moos, R. H. (1991). Life stressors, personal and social resources, and depression: a 4-year structural mode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1), 31.
- Hu, W., Sze, Y. T., Chen, H., & Fang, X. (2015). Actor - partner analys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of-origin triangul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 Chinese coupl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 2135-2146.
- King, V. (2002). Parental divorce and interpersonal trust in adult offspr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3), 642-656.
- Kline, R. B. (2023).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 Kong, R., Chen, R., & Meng, L. (2024). Parental conflict and adolescents' socially adverse emotions: the mediating role of family functioning. *Frontiers in Psychology*, *15*, 1387698.
- Leary, M. R., & Kowalski, R. M. (1990). Impression management: A literature review and two-component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07*(1), 34.
- Lee, Y. (2019). Cohort differences in changing attitudes toward marriage in South Korea, 1998 - 2014: An age-period-cohort-detrended model. *Asian Population Studies*, *15*(3), 266-281.
- Maxwell, S. E., & Cole, D. A. (2007). Bias in cross-sectional analyses of

- longitudinal mediation. *Psychological methods*, 12(1), 23.
- Mustonen, U., Huurre, T., Kiviruusu, O., Haukkala, A., & Aro, H. (2011). Long-term impact of parental divorce on intimate relationship quality in adulthood and the mediating role of psychosocial resourc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5(4), 615.
- Parke, R. D., & Ladd, G. W. (Eds.). (2016).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Routledge.
- Sarason, I. G., Sarason, B. R., & Pierce, G. R. (1990). Social support: The search for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1), 133-147.
- Shimkowski, J. R., Schrodt, P., & Willer, E. K. (2017). Difficulties in regulating emotions as moderators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young adult children's mental well-being. *Communication Reports*, 30(2), 116-128.
- Spence, S. H., Najman, J. M., Bor, W., O'Callaghan, M. J., & Williams, G. M. (2002). Maternal anxiety and depression, poverty and marital relationship factors during early childhood as predictors of anxie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4), 457-469.
- Wiest, W. M. (1965). A quantitative extension of Heider's theory of cognitive balance applied to interpersonal perception and self-esteem.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79(14), 1.
- Willoughby, B. J. (2010). Marital attitude trajectories across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 1305-1317.

- Yu, T., Pettit, G. S., Lansford, J. E., Dodge, K. A., & Bates, J. E. (2010). The interactiv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nd divorce on parent - adult children's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2), 282-292.
- Zill, N., Morrison, D. R., & Coiro, M. J. (1993). Long-term effects of parental divorce 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djustment, and achievement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1), 91.
- 安莉娟, & 王欣 (2002). 石家庄市大學生心理健康狀況与父親教養方式的相關性研究. *中國學校衛生*, 23(6), 522-523.
- 曹曉菁, & 滕曉琴 (2024). 大學生婚戀觀及其与疏离感, 社會支持的關係. *Advances in Social Sciences*, 13, 882.
- 柴相楠 (2019). 如何面對催婚的父母. *做人与處世*, (12), 42-43.
- 譚潤杰, & 李莎莎 (2015). 韓流文化對大學生思想政治教育的影響与啓示. *文教資料*, (6), 94-95.
- 陳毓文 (2004). 少年憂鬱情緒的危險與保護因子之相關性研究. *中華心理衛生學刊*, 17(4), 67-95.
- 池麗萍, & 王耘 (2002). 婚姻冲突与儿童問題行爲關係研究的理論進展 (Doctoral dissertation).
- 杜星好, 李佩, 高洁, & 楊茹茹 (2016). “韓流”對当代大學生價值觀的影響及引導對策——以西安地區爲例. *新絲路: 下旬*, (6), 74-75.
- 范曉光 (2012). 資源分布, 階層地位与社會支持——基于東亞華人社會的比較. *社會*, 32(4), 93-111.
- 高明, & 周世杰 (2011). 父母養育方式量表 (PBI) 在高職院校學生中的應用研究. *中國臨床心理學雜誌*, 19(2), 198-199.

- 高玉嬌 (2020). 親子依戀和交往焦慮：自尊與社會支持的中介作用. *Advances in Psychology, 10*, 1734.
- 郭曉燕 (2020). 韓流對中國青年思想影響研究
- 何蓓 (2012). 留學歸國人員的逆文化沖突研究綜述. *華僑華人歷史研究*, (1), 47-53.
- 何昊旻 (2022). 適婚青年人推遲婚姻的意願研究——基於四位“90 後”的訪談. *Modern Management, 12*, 757.
- 何金晶 (2010). 雙親沖突、心理應對方式對中學生同伴關係影響的研究. 杭州：浙江大學碩士學位論文.
- 何影, 張亞林, 楊海燕, 李麗, & 張迎黎 (2010). 大學生成人依戀及其與自尊、社會支持的關係. *中國臨床心理學雜誌*, 18(2), 247-249.
- 洪海珠 (2023). 父母沖突對高中生人際信任的影響：情緒安全感的中介作用. 吉林：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 胡江萍 (2006). 母親養育行為與兒童健康狀況的關係. *中國婦幼保健*, 21(2), 266-268.
- 金炳徹, & 都南希 (2020). 低生育率危機背景下韓國家庭福利政策變遷研究. *收藏*, 2.
- 冀云, 劉曉明, 馬艷杰, & 邵姝姮 (2014). 大學生親密恐懼與兒童期虐待的關係.
- 金英玉, 李梅, & 厲艷麗 (2024). 韓國超低生育與超老齡極端人口結構對經濟的影響, 對策及啓示.
- 賈志科, & 風笑天 (2018). 城市青年的婚戀年齡期望及影響因素——以南京、保定調查為例. *人口學刊*, 40(2), 72-85.
- 李芳芳, & 朱冬亮 (2024). 從“結婚難”到“獨居”：單身現象的變遷, 影響及反思. *中國青年研究*, (5), 61-69.
- 李玲莉, & 張鳳 (2021) 婚姻態度與結婚意願的研究綜述[J]. *魅力中國*,

2021(38): 7-8. DOI:10.12294/j.issn.1673-0992.2021.38.006.

- 李苗苗, 者亞因, 陰桐桐, & 邢曉沛 (2019). 婚姻質量与親子關係的主-客体互倚模型分析: 兒童意志控制的調節. *中國臨床心理學雜誌*, (2), 345-350.
- 李思琪. (2020). 中國 90 后与其父母愛情態度及成人依戀類型對比 (Master's thesis, 上海外國語大學).
- 李文倩 (2017). 新時代大學生出國留學動機研究及其教育引導. *科學中國人*, (4Z), 354-354.
- 李義安, & 王學臣 (2004). 父母養育方式對大學生防禦方式的影響研究. *山東師範大學學報: 人文社會科學版*, 49(3), 18-20.
- 李月, 成前, & 滕素芬 (2025). 我國未婚青年婚戀觀念、婚姻焦慮及政策態度探究[J]. *青年探索*, 2025(1):27-37
- 李云 (2024). 父母婚姻沖突對成年子女婚姻態度及注意偏向的影響. *貴州: 貴州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李祖嫻, 聶衍剛, & 田婧妤 (2009). 對父母婚姻關係的知覺与大學生婚戀觀的相關研究. *中國健康心理學雜誌*, 17(3), 270-273.
- 劉伯凡, & 劉叶 (2018). 高等教育的婚姻效應: 推遲結婚還是選擇不婚? ——來自合成控制法的新証据. *上海財經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20(3), 93-109. *中國心理衛生雜誌*, 28(2), 121-124.
- 劉紅霞, & 房嘉煦. (2011). 新生代大學生出國留學動機研究 ——對北京高校中 7 名欲出國留學大學生的深度訪談分析. *中國青年研究*, (7), 86-89.
- 劉湘玲, & 王俊紅 (2010). 問題少年的人格, 應對方式与父母婚姻沖突的相關研究. *黑龍江教育學院學報*, (6), 92-94.
- 劉亞麗 (2003). 当代大學生婚戀觀特点及引導. *思想教育研究*, 000(010), 28-30.
- 陸根書, 田美, & 黎万紅 (2014). 大學生出國留學意願的影響因素分析. *夏旦教育論壇*, 12(5), 36-44.

- 陸華東 (2011). 經濟危機時期的婚姻變動特征——以對 20 世紀 30 年代上海市民的結婚率, 離婚率的分析為例. *電子科技大學學報 (社科版)*, 13(6), 99-103.
- 馬暢蓬 (2012). 淺談中國傳統婚姻文化. *科技創新導報*, (32), 218-218.
- 馬春華 (2018). 結婚的壓力正在撕裂中國的家庭. 第六聲.
- 馬赫, & 李虹 (2018). 淺談“韓流”文化產業輸出對中國青年層價值觀的影響——以此啓示我國文化產業發展方向. *新聞傳播*, (20), 58-59.
- 馬偉娜 (2004). 父母養育方式, 應對方式與大學生心理健康的關係. *健康心理學雜誌*, 12(3), 216-217.
- 毛雨欣 (2024). 父母沖突知覺與大學生婚姻態度的關係及機制研究. *上海: 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彭厚鵬, & 羅五金 (2004). 小學生心理健康問題及其影響因素研究. *醫學與社會*, 17(5), 37-38.
- 羅煜霖, 王宇辰, 王昭越, 金美道, & 黃佳怡 (2024). 當代青年群體婚戀觀的現狀, 影響因素與干預策略研究. *Advances in Social Sciences*, 13, 229.
- 沈曉紅, & 姜乾金 (2000). 醫學應對方式問卷中文版 701 例測試報告. *中國行為醫學科學*, 9(1), 18-20.
- 沈洋, & 汪森滄 (2024). 住房政策如何影響未婚青年結婚意願——基於上海的考察. *學術研究*, 2, 74-81.
- 宋健, 劉詩雯, & 唐田榮 (2024). 低生育率背景下的中國婚育文化觀察. *人口研究*, 48(5), 17.
- 蘇英, 洪炜, & 崔軼 (2013). 目睹父母間沖突與兒童行為問題. *中國臨床心理學雜誌*, 21(3), 486-489.
- 譚素怡 (2020). 父母總催婚怎麼辦. *伴侶*, (3), 41-41.
- 王吉慶 (2024). 催婚家庭代際關係調適的個案工作介入研究. *吉林: 長春工業大學*.

- 王建中, & 汪群 (1996). 父母教養方式与大學生心理健康狀況分析. *中國心理衛生雜誌*, (S1), 104-105.
- 汪娟 (2021). 碩士研究生的婚姻態度：扎根理論与問卷調查混合研究. 江蘇：南京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王磊, & 覃曉靜 (2017). 父親教養方式, 自我接納与高中生自我呈現策略的研究. *Advances in Psychology*, 7, 1442.
- 王芫 (2016). 每逢佳節必催婚?. *財新周刊*, (2), 85-85.
- 王樹秀, & 鄭林科 (1999). 母親養育方式對子女性格影響的回歸分析. *西北師大學報：社會科學版*, (4), 65-68.
- 汪向東, 王希林, & 馬弘 (1999). 心理衛生評定量表手冊. *中國心理衛生雜誌*, 13(1), 31-35.
- 王學思, 李靜雅, & 王美芳 (2021). 父母婚姻冲突對兒童發展的影響及其机制. *心理科學進展*, 29(5), 875.
- 王陽, & 馬小雷 (2019). 催婚：現代社會家庭再生產的困境及其代際冲突——基于一位待婚女青年的生命歷程研究. *華東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34(4),
- 魏祥遷, 陳子楊, & 李夢文. (2019). 父母婚姻冲突知覺与大學生婚戀觀的關係——物質主義價值觀的調節作用. *齊魯師範學院學報*, 34(6), 1-8. 26-34.
- 魏祥遷, 陳子楊, & 李夢文 (2019). 父母婚姻冲突知覺与大學生婚戀觀的關係——物質主義價值觀的調節作用. *齊魯師範學院學報*, 34(6), 1-8.
- 韋耀陽, 周加勝, & 吳迪 (2018). 大學生家庭教養方式与心理安全感關係研究. *阿壩師範學院學報*, 35(1), 105-111.
- 吳飆, & 王爽 (2016). 從韓劇看“韓流”面向中國的傳播路徑及影響. *新聞研究導刊*, 7(2), 24-25.
- 吳小靜, 張穎萱, 張婉婷, 嚴子文, 楊冰, & 董華 (2022). 父母冲突對大學生攻擊

- 性的影響——敵意認知和社會支持的鏈式中介作用. *Advances in Psychology*, 12, 3089.
- 謝冀蓉 (2012). *高校大學生自費出國留學動机和適應性的調查研究* [D] (Doctoral dissertation).
- 熊明瑞, 劉倩, & 付瑤 (2022). 父母沖突對成年子女婚姻態度的作用: 親子關係的中介以及家庭結構的附加影響. *中國臨床心理學雜誌*, 30(4), 830-836.
- 邢凱, 楊莎, & 陳毅文. (2019). 婚姻滿意度對丈夫教養投入的影響: 教養能力感的中介作用.
- 謝麗惠, & 鄧大松 (2012). 高校畢業生理性人生規劃與出國留學熱潮分析. *生產力研究*, (5), 82-83.
- 楊國樞, 台灣心理學教授, & 余安邦 (1993). *中國人的心理與行為: 理念及方法篇: 1992*. 桂冠圖書公司出版.
- 楊林平 (2024) 父母沖突與中學生社交焦慮的關係: 社會限制和拒絕敏感性的作用. *貴州: 貴州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叶浩生 (2004). 文化模式及其對心理與行為的影響. *心理科學*, 27(5), 1032-1036.
- 叶俊杰 (2005). 大學生領悟社會支持的影響因素研究. *心理科學*, 28(6), 1468-1471.
- 逸飛, & 叶子 (2005). 為結婚而結婚, 我得到了什麼. *中國家庭醫生*, (03X), 36-37.
- 庾泳, 肖水源, 王希, & 孫錚 (2011). 婚姻態度量表中文版在未婚大學生及社區居民中的信度和效度. *中國心理衛生雜誌*, 25(1), 60-65.
- 袁曉嬌, 方曉義, 鄧林園, & 藺秀云 (2015). 原生家庭支持與干涉量表的編制. *中國臨床心理學雜誌*, 23(2), 242-245.
- 趙冰洁 (2002). 大學生婚戀觀的調查與研究. *中國臨床心理學雜誌*, 10(2), 111-113.

- 鄒丹鳳 (2024). 社交媒体中青年群体婚戀觀的網絡話語分析. *Journalism and Communications, 12*, 1514.
- 張娥, & 訾非 (2012). 大學生父母關係感知及其与安全感和特質焦慮的關係. *中國臨床心理學雜誌, 20*(6), 854-857.
- 張洪玉 (2018). 当代青年婚戀觀的主要影響因素分析——基于 14~ 35 周歲青年的調查數據. *河北青年管理干部學院學報, 30*(1), 15-22.
- 張靜, 石淑華, 朝美榮, 周愛琴, & 劉海霞 (2003). 影響學齡兒童自我意識的家庭环境因素研究. *中國學校衛生, 24*(4), 320-321.
- 張淑一 (2013). 先秦儒法婚姻思想比較. *古代文明, (3)*, 69-73.
- 趙嫻, & 張雨青 (2020). 成人婚姻態度与依戀及自尊和信任的關係. *Chinese Mental Health Journal/Zhongguo Xinli Weisheng Zazhi, 34*(8).
- 鄭真真 (2014). 韓國生育率變化及其影響因素對中國的啓示. 援中國人口科學袁.
- 鐘珮純, 王鍾和, & 鐘珮純 (2007). 父母婚姻關係, 親子依附風格與子女婚姻態度關係之研究 (Doctoral dissertation, 鐘珮純).
- 周柳伶, 李信, 劉彤, & 陳毅文 (2017). 婚姻滿意度對兒童心理適應性的影響: 成人依戀, 父母情緒表達, 親子依戀的多重中介作用. *心理与行爲研究, 15*(5), 714.
- 周燕, & 燕周 (2000). 影響中小學生心理健康的主要家庭环境因素. *華東師範大學學報 (教育科學版), 18*(2), 19.
- 周子涵, 劉學蘭, 賴曉璐, 金雯雯, & 黃友強 (2018). 共同教養在父母婚姻質量与親子關係的中介作用: 基于主客體互倚中介模型的研究. In *第二十一屆全國心理學學術會議摘要集*.
- 朱悅 (2021). 大學生家庭價值觀對其結婚意願的影響研究——以上海市在校大學生爲例. *上海: 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Conflict and
Attitudes Toward Marriage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LIU MENGQI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parent - child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conflict and attitudes toward marriage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residing in Korea. A total of 298 unmarried Chinese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aged between 19 and 34, who were studying in Korea, participated in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elf-report online survey. The questionnaire included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gender, age, region of study, educational background, and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along with scales that measured perceived parental

conflict, parent - child relationships, social support, and attitudes toward marriage.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among perceived parental conflict, parent - child relationships, social support, and attitudes toward marriage. Second, parent - child relationship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conflict and attitudes toward marriage. Third, social support also showe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conflict and attitudes toward marriage. Fourth, both parent - child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were found to fu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conflict and attitudes toward marriage in a sequential manner. This study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how perceived parental conflict, parent - child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were related to individual attitudes toward marriage. Furthermore, the findings suggested the need to help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build positive social support systems within their cultural and relational contexts in order to better cope with negative attitudes toward marriage.

Keywords: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perceived parental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ship, social support, attitudes toward marriage

부록

부록 1. 지각한 부모 갈등 질문지

부록 2. 부모-자녀 관계 질문지

부록 3. 지각한 사회적지지 질문지

부록 4. 결혼 태도 질문지

부록 5.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부록1: 지각한 부모 갈등 질문지〉

■ 현재 또는 과거에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해 느끼고 생각한 것에 해당되는 번호위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절대 아니 다	거의 아니 다	가끔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매우 자주 그렇 다
1	당신이 성장하는 동안 부모님은 얼마나 자주 싸우셨습니까?	1	2	3	4	5
2	부모님이 싸우실 때 부모님은 얼마나 화를 내셨습니까?	1	2	3	4	5
3	때때로 사람들은 실제로 드러내 놓고 싸우는 것 없이도 갈등을 경험합니다. 당신이 성장하는 동안, 부모님은 드러내 놓고 싸우지 않더라도 얼마나 자주 서로를 숨겨진 적대감을 갖고 대했습니까?	1	2	3	4	5
4	요즘, 부모님은 얼마나 자주 싸우십니까?	1	2	3	4	5
5	요즘, 부모님은 싸우실 때 얼마나 화를 내십니까?	1	2	3	4	5
6	때때로 사람들은 실제로 드러내 놓고 싸우는 것 없이도 갈등을 경험합니다. 요즘, 부모님은 드러내 놓고 싸우지 않으시지만 얼마나 자주 서로를 숨겨진 적대감을 갖고 대하고 있습니까?	1	2	3	4	5
7	당신이 성장하는 동안 부모님은 얼마나 서로를 지지하셨습니까?	1	2	3	4	5
8	부모님은 당신이 성장하는 동안 양육에 대해 의논하셨을 때 그분들은 얼마나 자주 논쟁하셨습니까?	1	2	3	4	5

	문항	절대 아니 다	거의 아니 다	가끔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매우 자주 그렇 다
9	당신이 성장하는 동안, 부모님은 얼마나 자주 상대방보다 한 발 앞서거나 능가하려고 하셨습니까?	1	2	3	4	5
10	당신이 성장하는 동안, 부모님은 얼마나 자주 서로를 비난하셨습니까?	1	2	3	4	5

<부록2 : 부모-자녀 관계 질문지>

■ 16세까지 성장하는 동안 당신의 부모님께 어떻게 느꼈는지에 따라 가장 적합한 번호

위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문항	아버지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다	언제 나 그렇 다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다	언제 나 그렇 다
1	2	3	4	1.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해 주셨다.	1	2	3	4
1	2	3	4	2.내가 원하는 만큼 도와주셨다.	1	2	3	4
1	2	3	4	3.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도록 해주셨다.	1	2	3	4
1	2	3	4	4.나에게 쌀쌀하게 대한 편이었다.	1	2	3	4
1	2	3	4	5.나의 문제와 걱정을 이해하려 하셨다.	1	2	3	4
1	2	3	4	6.나에게 다정다감했다.	1	2	3	4
1	2	3	4	7.나의 일을 내가 결정하도록 도와주셨다.	1	2	3	4
1	2	3	4	8.나의 정신적 성장을 원하셨다.	1	2	3	4
1	2	3	4	9.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섭하려 하셨다.	1	2	3	4
1	2	3	4	10.나의 개인 생활을 침범하셨다.	1	2	3	4
1	2	3	4	11.나와 함께 대화하길 즐겼다.	1	2	3	4
1	2	3	4	12.나에게 자주 미소를 보여 주셨다.	1	2	3	4
1	2	3	4	13.나를 어린애 취급하셨다.	1	2	3	4

1	2	3	4	14.내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이해하는 듯 했다.	1	2	3	4
1	2	3	4	15.내가 스스로 일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1	2	3	4
1	2	3	4	16.내가 원치 않은 자식이란 느낌이 들도록 하셨다.	1	2	3	4
1	2	3	4	17.내가 언짢을 때 기분을 풀어주었다.	1	2	3	4
1	2	3	4	18.나와 가끔 이야기하셨다.	1	2	3	4
1	2	3	4	19.부모님에게 의존심을 갖게 만들었다.	1	2	3	4
1	2	3	4	20.부모님은 자신이 내 옆에 없으면 내가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한다고 여기셨다.	1	2	3	4
1	2	3	4	21.내가 원하는 만큼 자유를 주셨다.	1	2	3	4
1	2	3	4	22.내가 원하면 되도록 밖으로 나가게 해주셨다.	1	2	3	4
1	2	3	4	23.나를 과잉보호 하셨다.	1	2	3	4
1	2	3	4	24.나를 칭찬해 주셨다.	1	2	3	4
1	2	3	4	25.내가 좋아하는 대로 옷을 입게 하셨다.	1	2	3	4

〈부록3: 지각한 사회적지지 질문지〉

■ 다음의 문장들은 귀하가 느끼시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설문입니다. 각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해당되는 번호위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동의 하지 않음	상당 히 동의 안함	약간 동의 하지 않음	중간 정도 임	약간 동의 함	상당 히 동의 함	매우 동의 함
1	나의 행복이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친구를 제외한)누군가가 있다.	1	2	3	4	5	6	7
2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1	2	3	4	5	6	7
3	나의 가족은 진심으로 나를 돕고자 한다.	1	2	3	4	5	6	7
4	나는 가족에게 의지하고자 했을 때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1	2	3	4	5	6	7
5	나는 진심으로 위안과 평온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1	2	3	4	5	6	7
6	내 친구들은 진심으로 나를 돕고자 한다.	1	2	3	4	5	6	7
7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을 때 나는 내 친구에게 의지할 수 있다.	1	2	3	4	5	6	7
8	나는 내 가족들에게 나의 고민 거리를 이야기 할 수 있다.	1	2	3	4	5	6	7
9	나는 나의 행복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	1	2	3	4	5	6	7
10	내 인생에는 나의 기분과 느낌에 관심을 갖는 누군가가 있다.	1	2	3	4	5	6	7

	문항	전혀 동의 하지 않음	상당 히 동의 안함	약간 동의 하지 않음	중간 정도 임	약간 동의 함	상당 히 동의 함	매우 동의 함
11	나의 가족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꺼이 도우려 한다.	1	2	3	4	5	6	7
12	나는 나의 고민거리를 내 친구 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다.	1	2	3	4	5	6	7

〈부록4: 결혼 태도 질문지〉

■ 미래 결혼 생활에 대해 기대하는 가치와 행동에 해당되는 번호위에 √ 표시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 렇다
1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2	내가 결혼한다면 내 결혼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	1	2	3	4
3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평생 유지해야 한다.	1	2	3	4
4	대부분의 결혼생활은 불행하거나 이혼으로 이어진다.	1	2	3	4
5	나는 결혼하면 만족한 결혼생활을 할 것이다.	1	2	3	4
6	나는 결혼이 두렵다.	1	2	3	4
7	나는 결혼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1	2	3	4
8	사람들은 결혼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결혼해야 한다.	1	2	3	4
9	대부분의 결혼은 불행하다.	1	2	3	4
10	결혼은 법적인 계약에 불과하다.	1	2	3	4
11	결혼은 신성한 행위이다.	1	2	3	4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 렇다
12	대부분의 결혼은 평등한 관계가 아니다.	1	2	3	4
13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생활에서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	1	2	3	4
14	결혼한 사람들의 절반이 이혼하기 때문에 결혼은 헛된 것처럼 보인다.	1	2	3	4
15	만약 내가 결혼해서 이혼한다 하더라도, 다시 재혼을 할 것 같다.	1	2	3	4
16	결혼한 사람들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1	2	3	4
17	내 평생의 꿈 중에는 행복한 결혼이 있다.	1	2	3	4
18	행복한 결혼이란 없다.	1	2	3	4
19	결혼은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	1	2	3	4
20	결혼은 다른 관계에는 없는 교제를 제공한다.	1	2	3	4

<부록5: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

3. 귀하의 유학 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서울특별시 ② 인천광역시 ③ 대전광역시 ④ 울산광역시 ⑤ 광주광역시
⑥ 부산광역시 ⑦ 경기도 ⑧ 강원도 ⑨ 충청도 ⑩ 전라도 ⑪ 경상도
⑫ 제주특별자치도

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대학 재학
②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③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5. 귀하의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년 미만
② 1~2년
③ 2~3년
④ 3~4년
⑤ 4~5년
⑥ 5년 이상

附录

附录1. 感知的父母冲突问卷

附录2. 父母-子女关系问卷

附录3. 社会支持问卷

附录4：对于结婚态度问卷

附录5：人口统计学调查表

〈附录1：感知的父母冲突問卷〉

■請在最符合您当前或過去對父母的感受和想法的程度選項上標記✓

	问题	完全 没有	几乎 没有	偶尔 有	经常 有	几乎 一直 有
1	在您过去的成长过程中，您的父母有多频繁发生争吵？	1	2	3	4	5
2	当您的父母争吵时，他们会有多愤怒？	1	2	3	4	5
3	有时，人们即使没有公开争吵，也会经历冲突。在您过去的成长过程中，您的父母在未公开争吵的情况下，有多频繁以隐性的敌对态度对待彼此？	1	2	3	4	5
4	最近您的父母有多频繁发生争吵？	1	2	3	4	5
5	最近您的父母争吵时，他们会有多愤怒？	1	2	3	4	5
6	有时，人们即使没有公开争吵，也会经历冲突。最近您的父母在未公开争吵的情况下，有多频繁以隐性的敌对态度对待彼此？	1	2	3	4	5
7	在您成长过程中，您的父母有多支持彼此？	1	2	3	4	5
8	在您成长过程中，您的父母在讨论如何养育您时有多频繁发生争论？	1	2	3	4	5
9	在您成长过程中，您的父母有多频繁试图赢过对方或占上风？	1	2	3	4	5
10	在您成长过程中，您的父母有多频繁相互指责彼此？	1	2	3	4	5

〈附录2：父母-子女關係問卷〉

■請在最符合您16歲之前的成長過程中對父親的感受和對母親的感受程度選項上標記✓

母亲				问题	父亲			
完全 不这 样	大体 上不 这样	大体 上这 样	任何 时候 都这 样		完全 不这 样	大体 上不 这样	大体 上这 样	任何 时候 都这 样
1	2	3	4	1. 用温和友好的语气与我说话。	1	2	3	4
1	2	3	4	2. 在我需要时给予我足够的帮助。	1	2	3	4
1	2	3	4	3. 允许我做自己喜欢的事情。	1	2	3	4
1	2	3	4	4. 情感上显得对我冷淡。	1	2	3	4
1	2	3	4	5. 了解我的问题与担忧。	1	2	3	4
1	2	3	4	6. 对我很疼爱。	1	2	3	4
1	2	3	4	7. 喜欢我自己拿主意。	1	2	3	4
1	2	3	4	8. 希望我在精神上有所成长。	1	2	3	4
1	2	3	4	9. 试图控制我做的每一件事。	1	2	3	4
1	2	3	4	10. 侵犯我的隐私。	1	2	3	4
1	2	3	4	11. 喜欢与我商量事情。	1	2	3	4
1	2	3	4	12. 经常对我微笑。	1	2	3	4
1	2	3	4	13. 把我当作小孩对待。	1	2	3	4
1	2	3	4	14. 了解我需要什么或想要什么。	1	2	3	4

1	2	3	4	15. 让我自己决定自己的事情。	1	2	3	4
1	2	3	4	16. 让我觉得自己是可有可无的。	1	2	3	4
1	2	3	4	17. 在我心烦意乱的时候可以让我的心情好起来。	1	2	3	4
1	2	3	4	18. 经常与我聊天交谈。	1	2	3	4
1	2	3	4	19. 试图让我觉得我离不开他/她。	1	2	3	4
1	2	3	4	20. 觉得没有他/她在身边我就不能照顾好自己。	1	2	3	4
1	2	3	4	21. 给我足够的自由。	1	2	3	4
1	2	3	4	22. 允许我自由外出。	1	2	3	4
1	2	3	4	23. 对我保护过度。	1	2	3	4
1	2	3	4	24. 经常表扬我。	1	2	3	4
1	2	3	4	25. 允许我随心所欲的选择穿着。	1	2	3	4

〈附录3：社會支持問卷〉

■ 以下是關於您所感受到的社會支持的調查問卷。請在在相應的感受程度選項上標記✓

	问题	完全不同意	相当不同意	有点不同意	中间程度	有点同意	相当同意	完全同意
1	我能够与有些人（老师，领导，同学，亲戚，同事）分享我的幸福和悲伤的。	1	2	3	4	5	6	7
2	在我遇到问题时有些人（老师，领导，同学，亲戚，同事）会出现在我的身旁。	1	2	3	4	5	6	7
3	我的家庭能够切实具体地给我帮助。	1	2	3	4	5	6	7
4	在我需要时我能够从家庭获得情感上的帮助和支持。	1	2	3	4	5	6	7
5	当我有困难时有些人（老师，领导，同学，亲戚，同事）是安慰我的真正源泉。	1	2	3	4	5	6	7
6	我的朋友们能真正的帮助我。	1	2	3	4	5	6	7
7	在发生困难时我可以依赖我的朋友们。	1	2	3	4	5	6	7
8	我能与自己的家庭谈论我的难题。	1	2	3	4	5	6	7
9	我的朋友们能与我分享快乐和忧伤。	1	2	3	4	5	6	7
10	在我的生活中，有些人（老师，领导，同学，亲戚，同事）关心着我的感情。	1	2	3	4	5	6	7
11	我的家庭能心甘情愿协助我做出各种决定。	1	2	3	4	5	6	7

问题	完全不同意	相当不同意	有点不同意	中间程度	有点同意	相当同意	完全同意
12 我能与朋友们讨论自己的难题。	1	2	3	4	5	6	7

〈附录4：对于结婚态度问卷〉

■ 请在符合您对未来婚姻生活期待的价值观念和行为的选项上标记√

	问卷	不这样	倾向于不这样	倾向于这样	这样
1	每个人都应该结婚。	1	2	3	4
2	我对自己的婚姻能否成功几乎没有信心。	1	2	3	4
3	人们应与配偶一起维系婚姻并厮守终身。	1	2	3	4
4	大多数夫妻要么维持着不幸福的婚姻，要么就离婚了。	1	2	3	4
5	我会因为结婚而感到满足。	1	2	3	4
6	我害怕结婚。	1	2	3	4
7	我对婚姻持怀疑态度。	1	2	3	4
8	只有确信婚姻将维持一生时，人们才应当结婚。	1	2	3	4
9	大多数人的婚姻并不幸福。	1	2	3	4
10	婚姻仅仅只是一个法律的形式。	1	2	3	4
11	结婚是神圣的行动。	1	2	3	4
12	在大多数人的婚姻关系中，夫妻双方是不平等的。	1	2	3	4

	问卷	不这 样	倾向 于不 这样	倾向 于这 样	这样
13	大多数人都为婚姻牺牲太多。	1	2	3	4
14	很多婚姻都以离婚告终，婚姻似乎没有什么意义。	1	2	3	4
15	如果我离婚了，我可能会再婚。	1	2	3	4
16	我认为当夫妻无法再相处下去时，就应该离婚。	1	2	3	4
17	我一生的梦想包括幸福的婚姻。	1	2	3	4
18	不存在有幸福的婚姻。	1	2	3	4
19	婚姻对个人目标的实现是一个障碍。	1	2	3	4
20	婚姻关系不能为其他类型的人际关系所取代。	1	2	3	4

〈附錄5：人口統計學調查表〉

1. 請問您的性別是？

- ① 男 ② 女

2. 請問您現在的年齡是？

滿 _____ 周歲

3. 請問您的留學地區是哪里？

① 서울특별시 首爾特別市 ② 인천광역시 仁川廣域市 ③ 대전광역시 大田廣域市

④ 울산광역시 蔚山廣域市 ⑤ 광주광역시 光州廣域市 ⑥ 부산광역시 釜山廣域市

⑦ 경기도 京畿道 ⑧ 강원도 江原道 ⑨ 충청도 忠淸道 ⑩ 전라도 全羅道

⑪ 경상도 慶尙道 ⑫ 제주특별자치도 濟州特別自治道

4. 請問您現在的學習階段是？

① 大學在讀

② 研究生在讀

③ 博士在讀

5. 請問您在韓國居住多久了？

① 不到1年

② 1~2年

③ 2~3年

④ 3~4年

⑤ 4~5年

⑥ 5年以上